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ANSAS CITY
KOREAN JOURNAL
캔사스 시티 코리아 저널

AP 01 월

2019
JANUARY

SKINCARE
MORE TIME YOU SPEND
THE YOUNGER YOU ARE

Tightening | Brightening | Anti-aging | Microcurrent Treatment

The best skincare you can get!
Discount on your first visit!
Exclusive VIP Memberships available-
make your appointment today!

(913)291-7172
12020 Blue Valley Pkwy Ste 132, O.P., KS 66213

Inside the Issue
이달의 지역기사

2018년 캔사스시티 한인회 송년파티
PG.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2018년 가을학기 종강식
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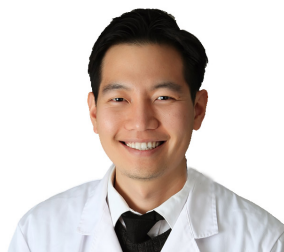
Dr. Kyunghwan An
Adjustments 교정 \$29
Acupuncture 침 \$29
Adjustments & Acupuncture
척추교정 & 침 \$39

Grandview Chiropractic & Acupuncture Clinic
12121 Suite O Blue Ridge Blvd., Grandview, MO 64030
Phone number: 816-217-0020

청정한약
빠른회복

816-444-1218

교통사고, 각종질환 양.한방전문협진 | 한의사 김일형



platinum realty



김준수 세무 회계 부동산

세무 회계 부동산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와 재산 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JUNSU KIM, CPA, EA, MSA, REALTOR
10322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T.913-383-8558 / F.913-815-8810 / INFO@BIZPROKC.COM



KANSAS CITY
KOREAN JOURNAL

JAN 2019
VOL #51 \$3.95

Breaking news online
kckoreanjournal.com

Find us on
Facebook

/ kckoreanjournal

교통사고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세요
사고의 불평과 고통을 최소한하게 드리겠습니다.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병원
예약전화: 913-649-2044



INSURANCE AGENT
보험 전문인
이 리사 (Lisa Lee Moran)

913-217-5169

Lisa@AutoHomeKC.Com

자동차, 주택, 사업, 생명, 메디케어 플랜
AUTO. HOME. BUSINESS. LIFE
MEDICARE HEALTH PLAN

7180 W 107TH ST., #10, OVERLAND PARK, KS 66212

Lisa

로한 척추신경 & 침술클리닉



아름다운 중심을 잡습니다

교통사고

운동상해

디스크 질환

어깨질환

임산부 교정

메디컬 마사지

디지털 X-ray



상담해드립니다.

- ✓ 학생 보험 및 각종 보험
- ✓ 무보험자 할인 혜택
- ✓ 교통사고와 직장에서의 사고는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LohanChiro

교통사고 대처요령

- 1 사고 후 통증 발생 시, 911전화
- 2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카드 (이름, Policy#, 자동차 Year, Make, Model) 운전 면허증, 자동차 번호판의 정보를 확보
- 3 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알 수 있게 현장 촬영 (전체 환경을 다 포함한 사진- 신호체계, 몇 차선 도로, 스타프 사인 여부, 차량 번호판)
- 4 상대방이 전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차량 제공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TEM
한방 클리닉
816-444-1218 ext.4



Lohan Clinic
Skin & Massage
816-444-1218 ext.3



자매 병원
Grandview Clinic
816-217-0020



로한 스킨 클리닉

f #LohanSkin

동안 관리

여드름 관리

얼굴 경락

미백 관리

리프팅 | 탄력

노화 방지

얼굴 경락은 막힌 피부를 풀어 괴사된 세포 및 유해한 독소 등이 림프에 의해 체외로 배출되면서 피부에 산소포화도가 높아져 혈기가 좋아지게 합니다.



Jet Clear는 강력한 압력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피부와 두피에 물 입자를 분사해 피부 부위를 세정하거나 영양 물질 화장수를 도포하여 모공청소, 각질제거, 미백, 여드름, 그리고 턱선과 눈가에 주름개선 및 탄력에 효과적이며 얼굴에 축적되어있는 유해한 독소를 제거해주는 최신장비입니다.

✓ **바디** 전신마사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www.lohanskin.com

양/한방 협력 진료 Free Clinic

NEW PATIENT ONLY

2019년 1월 10일, 무료진료 !!

1월달 신년 행사

비염 치료제 무료증정 !!

816-444-1218

척추신경의 홍성민

한의학사 김일형

금연, 금주, 다이어트 **“한방”**으로 해결!!

KC CALENDAR OF EVENTS

December 31: NEW YEAR' S SWINGIN' EVE: December 31-January 1, From: 08:00 PM to 01:00 AM, Union Station Kansas City, 30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December 31: NYE LIVE!: December 31-January 1, From: 09:00 PM to 12:00 AM
KC Live! Block, 1100 Walnut St., Kansas City, MO 64106

December 31: NEW YEAR' S EVE BLACK TIE MASQUERADE: December 31-January 1, From: 09:00 PM to 01:00 AM, The Fontaine, a Kansas City Hotel, 901 W 48th Pl. Kansas City, MO 64112

January 1: NEW YEAR' S DAY

2019년 기해년 신년 하례회 초청장

캔사스시티 한인동포 여러분들을 2019년 캔사스시티 한인회 신년하례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2019년 1월 5일 (토) 오전 11시
- 장소: 안디옥 나사렛교회
- 행사내용:
 - > 신년 하례행사
 - > 오찬

January 10: KANSAS CITY BOAT & SPORTSHOW: January 10-January 13, Jan. 10, 2-9 p.m. Jan. 11, Noon-9 p.m., Jan. 12, 10 a.m.-9 p.m., Jan. 13, 10 a.m.-5 p.m.: Kansas City Convention & Entertainment Facilities, 301 W 13th St., Kansas City, MO 64105

January 11: 2019 KANSAS CITY RESTAURANT WEEK: January 11-January 21, From: 12:00 PM to 12:00 AM, Regional

January 15: THE SOUND OF MUSIC: January 15-January 20, Starting: 06:30 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January 16: CIRQUE DU SOLEIL' S CRYSTAL: January 16-January 20,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5

January 17: MID-AMERICA RV SHOW: Sunday, Thursday, Friday, Saturday, January 17-January 20, Kansas City Convention & Entertainment Facilities, 301 W 13th St., Kansas City, MO 64105

January 24: SWAN LAKE DANCED BY RUSSIAN NATIONAL BALLET: From: 07:30 PM to 09:30 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January 25: 2019 ROY-ALS FANFEST: January 25-January 26, Kansas City Convention Center's Bartle Hall, 301 W 13th St., Kansas City, MO 64105

January 26: WINTER JAM TOUR SPECTACULAR: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5

January 29: LUNCH & LEARN: WORKING EFFECTIVELY ACROSS CULTURES: 11:30 a.m.
Mazuma Credit Union (7260 W. 135th St., Overland Park, KS 66223)

◆ 목차 / READER'S GUIDE

◆ 커뮤니티 / COMMUNITY	PG 6-9	◆ 스포츠 / SPORTS	PG 22-23
◆ 캔사스 소식 / LOCAL NEWS	PG 10-11	◆ 웰니스 / WELLNESS	PG 25-27
◆ 세계 뉴스 / WORLD NEWS	PG 12-15	◆ 문화 와 생활 / LIFESTYLE	PG 24-25
◆ 사업 / BUSINESS	PG 18-19	◆ 믿음 / FAITH	PG 28-29
◆ 디렉토리 / DIRECTORY	PG 16-17	◆ 무료 광고 / CLASSIFIEDS	PG 30-31
◆ 경제 / ECONOMY	PG 20-21		

◆ 일반 및 광고 연락처 / GENERAL AND ADVERTISING CONTACT

Email: kim@kckoreanjournal.com Phone: 913-802-2005
ONE.FIVE Media LLC : Kansas City Korean Journal

(여러분의 광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캔사스의 유일한 한인신문 KCKJ로 연락주세요. 한인특별가로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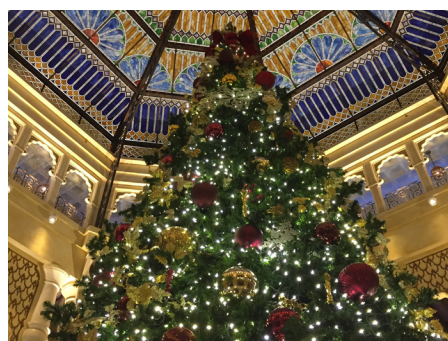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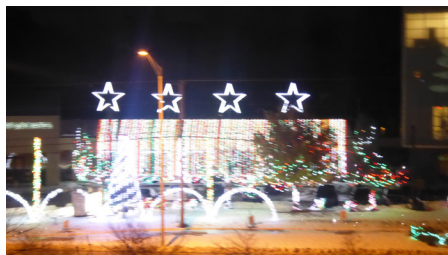
편집자 주 / EDITOR'S NOTE

- 모든 칼럼의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은 요약본이며, 외부필자의 원고는 신문사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ll translations of the columns are done in summary form.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expressed by the contributing writers may not reflect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of KCKJ.
-
- 캔사스시티 코리안 저널의 (연합 뉴스)로 표기된 모든 기사의 발신지와 저작권자는 연합뉴스이며,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절대 금합니다.
 1. 연합 뉴스 - (기사발신지=연합뉴스)
 2. 저작권문구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The source and copyright holder of all articles marked as Associated Press (AP) in Kansas City Korean Journal is AP News(AP), reprinting or distributing without permission is strongly prohibited.
 1. AP - (Article Source Reuters)
 2. The copyright notice <copyright (C) AP All Rights Reserved - Copyright by>
 - 마감일을 넘겨오는 기사나 광고는 부득이하게 다음호로 넘겨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 신문의 수정 사항을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적을 귀하게 받아 더욱 발전하는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보내실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find any information in error, please direct them to kim@kckoreanjournal.com Thank you.

RETAIL STORE FOR RENT
 10413 & 10415 BLUE RIDGE BLVD
 KC, MO 64134

MOVE IN READY!

FOR MORE INFO
 CALL JIN KIM 860-478-7035



Christmas lights around Kansas.

경험많은 셰프가
 일식 전통과 튜진이 어우러진
 코스 요리를 서브 합니다
 예약 913.258.5879
 단체예약 받습니다



Lunch
 Mon-Fri 11:30-2:30pm
 Sat & Sun 12-3pm
 Dinner
 Mon-Thu 4:30-9pm,
 Fri 4:30-10pm
 Sat 3-10pm
 Sun 3-9pm
 Happy Hour
 Mon-Fri 4:30-6pm
 Sat & Sun: 3-5pm

Prairie Fire 5621 W. 135th St. Suite 2620
 Overland Park, KS 66223
 www.marusushikansas.com 913.258.5879

We're MOVING!!

Soo's Hair



Great Cut

Hours:

- Digital Perm
- Setting Perm
- Design Cut
- Hair Dye
- Good Quality
- No Damage

Mon: Only Appointment
 Tue - Fri: 10 am - 7 pm
 Sat: 9 am - 6 pm
 Sun: 1 pm - 6 pm

Work: (913) 341-5265

Location:

**10312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2018년 캔사스시티 한인회 송년파티



지난 2018년 12월 16일 Camelot Ballroom에서 제 32대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최(회장: 안경호) 송년파티가 있었다. 이주현 한인회 사무총장과 Denis Cho의 사회로 시작된 캔사스시티 한인회 송년파티는 윤정재 캔사스시티 한인회 부회장의 환영인사, 국민의례, 이은철 목회자협의회 회장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시카고 영사관에서는 최성규 영사가 참석하여 캔사스시티 한인회 송년파티에 축하인사를 해주었다.

안경호 한인회장은 2018년 한인회 송년파티에 자리를 같이해준 캔사스시티 한인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성배 한인회 이사장은 격려사를 해주었다. 안경호 한인회장은 그동안 한인회를 위하여 수고해준 비상대책위원회에 공로장 전달식을 가졌다.

이어지는 시간으로는 안경호회장과 더불어 32대 한인회를 함께 이끌어 가는 한인회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다. 김준수 수석 부회장의 내빈 소개가 있었고 이어 남성중창단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1부의 시간을 마쳤다.

2부에서는 만찬을 위하여 최진호 목회자 협의회 총무의 기도 후,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즐거운 만

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캔사스시티 한인회 송년파티는 한식과 일식으로 음식 준비를 하였다. 스키 전문가를 초빙하여 신선한 스키를 직접 만들었고, 떡과 밥, 그리고 잡채, 무생채, 불고기, 오징어 무침, 돼지고기 수육, 천사채, 해초무침, 무말랭이, 샐러드, 김치의 음식이 준비되었다. 후식으로는 과일과 치즈케익이 준비되었다.

안경호 한인회장은 코리언저널 지면을 통하여 참석해 주신 한인동포사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행사 진행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 드리며 지속적인 한인동포 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3부에서는 Victor Le' Yon의 Magic show, Roger Wilder Quintet의 재즈 공연이 있었다. 이번 캔사스시티 한인회 송년파티에는 LG에서 제공한 TV 등 세 종류의 상품을 비롯하여, 한인회 이사회에서 제공한 비행기표 및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었고 마지막 최고의 경품인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은 이항경씨한테 돌아갔다. 캔사스시티 한인회에서는 이번 송년파티가 캔사스시티 한인동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송년 파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2월 초부터 몇 차례 임원회의를 거치며 많은 준비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송년파티에 참석하신 한인동포들에게 기쁨을 드리기를 위하여 송년파티장 입구에 포토존을 준비해서 함께 오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바로 바로 사진을 뽑아 한인회 액자에 넣어 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한인회 송년파티장 안에서는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다. 캔사스 한인동포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만난 산타에, 아이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번 송년파티에서 찍은 사진들은 추후 캔사스시티 한인회 웹사이트와 facebook 웹사이트가 정비되는대로 한인동포들이 모두 함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다.

안경호 한인회장은 이번 캔사스시티 한인회 송년파티에서 한인회 임원들의 동의를 받고 한인회 임원들은 상품 추첨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캔사스시티 한인회 임원들은 한인 동포들에게 좀 더 많은 상품추첨의 기회를 드리기를 위하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동의하였고, 송년파티를 위하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이번 2018년 캔사스시티 한인회의 송년파티는 많은 한인동포들이 참석하며 32대 캔사스시티 한인회와 함께 해주었다. 더욱이 참석해주신 한인동포들은 송년파티가 끝날 때까지 거의 모든 분들이 끝까지



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어, 2018년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최 송년파티는 더욱 의미있는 송년파티가 되었다.

(글/사진: 캔사스시티 한인회 보도위원. 안향미)

December 16 held a welcome come back for Korean American Society of Greater Kansas City Association. It was the return of the annual Christmas Party, the last one was in 2015, with Santa Claus walking around greeting everyone. Over 350 guests came and many were excited for the renewed tradition. This year's party was held in the Camelot Ballroom with food catered by the community. There was a jazz band and a magician to entertain the guests. There were many donated prizes and the coveted plane ticket to South Korea raffled off. It was a long and fun night and our community looks forward to the new year.



2019년 기해년 신년 하례회 초청장

캔사스시티 한인동포 여러분들을 2019년 캔사스시티 한인회 신년하례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2019년 1월 5일 (토) 오전 11시
- 장소: 안디옥 나사렛교회
- 행사내용:
 - 신년 하례행사
 - 오찬

(도네이션 내역 및 회비 납입현황)

캔사스 한인회 회비는 1인당 \$20로, 납입시 2020년 이월까지 유효합니다.

한인회 도네이션 명단		한인회 회비 내신 분들 명단		
안경호	\$5,000.00	김수환	김석환	천우선
Asi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1,500.00	천창호	안진성	John Doawson
Assi	\$1,100.00	이주현	데니스 조	차미화
초가	\$1,000.00	박순현	김현영	조영애
왕희철	\$960.00	정영로	안성호	이영일
상록회	\$500.00	김봉석	김성배	위우석
Viva Fashion	\$500.00	김준수	최성용	윤정재
고 박세연 회장 가족	\$500.00	정원화	유갑무	은영영
배규태	\$440.00	지형준	김경민	이아롱
문현자	\$350.00	김상아	김한석	최성오
안성호	\$335.00	윤태석	Chung Yun	권수연
김봉석	\$300.00	정지훈	전인성	김성
베델 장로 교회	\$200.00	하오령	박진숙	조정남
제일 장로 교회	\$200.00	J Kim	임소연	김시연
박병관	\$200.00	임은경	한경완	장린옥
Scott An	\$200.00	임명찬	신혜승	강미영
Thomas Lee	\$200.00	박영자	조은경	김정원
양영승	\$200.00	주은은	정태경	황민정
임마누엘 감리 교회	\$150.00	왕희철	독고영식	이경남
정기호	\$110.00	왕혜연	안경호	오명순
독고영식	\$100.00	최병연	박귀우	안승철
이경남	\$100.00	안승민	안향미	박선희
김광목	\$100.00	정판조	김다위	이향경
김준윤	\$100	김도준		
LG : (Headset, 전화기, TV)				
중부시장		압력밥솥 2개		
\$100이하 도네이션 명단				
총금액		\$508.00		
유갑무, 나눔의 교회, 김정원, 은영영, 최병연, 천우선&천창호, 윤성재, 무명(\$153.00)				
도네이션 TOTAL	\$14,853.00	한인회 회비 총수입 (Aug. 2018 ~ Dec 2018)		\$1,375.00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2018년 가을학기 종강식



지난 12월 8일 캔사스시티 한국학교(교장 이명희)에서는 2018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식이 있었다.

캔사스선교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번 종강식은 교사(KSL 2)이자 뉴비전교회 담임목사인 박근영 목사의 감사기도와 위우석 이사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되었다.

안경호 캔사스시티 한인회 회장, 조영애 전 교장, 윤부성 전 교장 등 내빈을 비롯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학기의 결실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첫 순서로 순수 외국인인 고급반 아름 (Josette Pinto) 학생이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 애국가와 미국국가를 불러 색다른 종강식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지난 11월에 열린 학교문화축제(장소: Blue Valley Southwest High School, 주최: Spanish National Honor Society)에서 한국을 소개했던 내용을 아름 학생이 발표하였다. 순수 외국인 학생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홍보에 대해 한국어로 발표하여 듣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오케스트라반에서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를 감미롭게 연주해 주었고, 합창반 학생들의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본당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유치1반, 유치2반 아이들은 율동을 선보였는데, 앙증맞은 아이들의 작고 귀여운 몸 동작 하나 하나에 학부모님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새가 없었다.



기초반 아이들도 루돌프 머리띠와 페이스페인팅까지 하며, 무대 위에서 모두 함께 신이 나서 멋진 율동을 보여주었다.



중급2반에서는 ‘나는 대한민국이다!’라는 노래에 맞추어 매스 게임을 선보였는데, 학생들 모두가 최선을 다한 공연이었기에 본당 안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특히 KSL 성인반 학생들의 공연이 눈길을 끌었는데, 외국학생들이 우리의 민요 아리랑 노래, 사투리로 구성한 ‘팔도강산’ 콩트 동영상, 방탄소년단(BTS)의 ‘Idol’ 댄스 등 흥겹고 멋진 무대공연을 선보였다.



고급반 학생들은 ‘한국학교 학생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동영상을 준비했다. 아이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장면에서는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한편으로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한국어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어깨라도 툭툭 두드려 주며 힘을 북돋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또한 ‘한국학교에 왜 오는가? 어떤 점이 좋은가?’ 등의 질문에 유치반부터 KSL 성인반까지 모두 참여한 인터뷰 동영상도 있었는데, 우리 캔사스시티 한국학교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함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날 모든 행사는 2018년 가을학기 학생들을 위해 수고한 교사들과 보조교사들의 인사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학부모와 교사가 다과 및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랬다.



이번 가을학기도 언제나 열정을 다해 교육에 임한 교사들과 배움에 최선을 다한 학생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학부모님들의 수고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7주간의 방학을 통해 쉼을 얻고, 2019년 봄학기도 새로운 마음으로 배움의 문을 활짝 열기로 다짐한다.

*****2019년 봄학기는 2월 2일(토요일)에 시작합니다. *****
2019년 봄학기 등록은 현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첫 수업은 2019년 2월 2일에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홈페이지: <http://kckoreanschool.korean.net>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learnko-reankc>

*이사장: 위우석 (913-337-8823/ wiwooseok@gmail.com)

*교장: 이명희 (816-469-8110/ leesaltkr73@gmail.com)

*English Contact: June Cho, Vice-principal (913-220-3021/ June.cho@gmail.com)

학교주소: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운영비내역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전년 이월금	19,891.38	건물 사용료	5,153.60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17,810.00	인건비	34,220.00
등록금	40,790.00	교육훈련	6,396.01
도네이션 (안경호회장)	1,000.00	교제구입	6,018.75
도네이션 (캔사스시티 한인회)	1,000.00	간식비	777.09
간식판매 및 기타수입	1,476.05	행사비	7,655.63
		기타 사무용품	2,913.47
		중서부협의회 회비	200.00
총수입	81,967.43	총지출	63,334.55
		잔액	18,632.88

(기사/사진: 캔사스시티 한국학교교사 안향미)



NEW KANSAS GOVERNOR'S BUDGET REPAIRS MAY FIRE GOP OPPOSITION

By JOHN HANNA

12/23/2018 TOPEKA, Kan. Kansas' incoming Democratic governor uses words like "decimated" to describe what's happened to state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and will be looking to add staff, boost spending and rethink contracts that outsourced jobs to private companies. Yet the same electorate that chose Gov.-elect Laura Kelly out of displeasure with her Republican predecessors opted in more-localized races to push the Legislature further to the right. Upon taking office in January, she will face GOP supermajorities and conservative leaders, setting up political fights over proposals seen as expanding state government's footprint. It's not just big initiatives, such as more spending on public schools or expanding the state's Medicaid health coverage for the needy. After advisers fanned out to state agencies, Kelly said she's concerned about a shortage of social workers to serve troubled children, how the state processes tax payments and even whether it can clear highways well in a winter storm. She promised during her campaign not to increase taxes; she is not backing off that pledge, and GOP leaders have said they intend to hold her to it. But during a recent Associated Press interview,

she also made it clear that she believes extra money and staff are needed to fix things.

"I am not sure we knew how bad it was," said Kelly, a veteran state senator from Topeka and a key player in legislative budget debates.

"We have seen our agencies just hollowed out."

Some Republicans agree that parts of state government, particularly prisons and services for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need attention. But conservatives also see an annual budget that has grown 22 percent over the past decade to \$17 billion, with much of the new spending driven by Kansas Supreme Court mandates to boost education funding.

GOP legislators slashed personal income taxes in 2012 and 2013 at then-Republican Gov. Sam Brownback's urging, as a fiscal experiment and economic stimulus. After persistent shortfalls, lawmakers reversed most of the tax cuts in 2017.

Kelly made Brownback a key issue in the campaign, even after he resigned in January for an ambassador's post. His successor, Republican Gov. Jeff Colyer, who narrowly lost the GOP primary in August, said he "walked into a very difficult situation," but "I think we need to look at where we're going and what we've accomplished."

"As a state and as state



government, we're in a much better position than we were a year ago or 10 years ago, overall," he added during a recent interview.

Prison disturbances last year spotlighted high turnover rates and low pay among staff.

The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faced intense scrutiny after high-profile deaths of children in abusive homes in recent years and reports that troubled kids slept in state contractors' offices. The department's staff of child-protection specialists and supervisors has shrunk 8 percent over the past decade, to fewer than 500, even as the number of children in foster care has jumped 49 percent, to more than 7,400.

Kelly and her staff also have questioned two Department of Revenue contracts worth

\$82 million for a subsidiary of the Canada-based CGI Group to modernize its system for collecting delinquent taxes and to manage its tax-collection systems.

"A core competency of ours is not software development," said Sam Williams, the current revenue chief.

He said the contracts have made the department more efficient, but Kelly's transition team questions that, based on its own review. She said her team is reviewing all state contracts.

"If we find contracts that ar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people of Kansas and there is a way to modify them or break them, we will do that, if we have a good substitute in place," she said.

The incoming governor also cited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s another agency with bigger problems than she anticipated. It lost more than 800 staff positions over the past decade, or nearly 26 percent. Kelly's team worries that road crews are stressed so much that, "They'd be lighting candles to ensure that we don't have a statewide snow storm."

"I would imagine that we will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te employees," she said. "To what extent, I don't know yet."

While Kelly talks of "triage" to fix the most urgent problems, Republican legislators said their constituents want government that's lean and efficient.

"Accountability drives their greatest concern regarding the size of government," said Rep.-elect Kellie Warren, a Kansas City-area Republican.

"They want to see that their tax dollars are being used wisely, efficiently — where is it going and can we do more with less?"

Follow John Hanna on Twitter: <https://twitter.com/apjdhan>

SPIRIT AEROSYSTEMS가 WICHITA에 1,4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표하다

항공기 부품 업체인 Spirit AeroSystems는 내년에 Wichita 공장에서 추가로 1,400 명을 고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John Gentile 최고 경영 책임자는 기자 회견에서 작년 발표한 10 억 달러 규모의 Wichita 공장의 확장계획으로 1,0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수개월 내에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캔자스 주지사 Jeff Colyer는 이 발표 내용을 "캔자스 주의 가장 큰 뉴스"라고 전하기도 했다.

Wichita Eagle은 2017년 12 월의 확장 발표 당일 11,000 명에서 2019 년 말까지 13,400 명의 직원으로 Wichita의 본사 직원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고했다. 해당 웹 사이트에 의하면 이 회사는 전세계에 15,000 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앞서 5월 경 Wichita에서 가장 큰 기업인 Spirit AeroSystems은 10억 상당의 지원을 더해 150,000 평방 피트 규모의 건물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Boeing은 2005 년에 Wichita 및 Oklahoma 사업부를 매각하여 현재 Spirit AeroSystems로 알려진 회사를 건설했다. 현재 이 회사는 보잉 373 동체를 비롯한 여러 상업 및 국방용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고 있다.

SPIRIT AEROSYSTEMS ANNOUNCES 1,400 NEW JOBS AT WICHITA PLANT

12/19/2018 WICHITA, Kan.

Aircraft parts maker Spirit AeroSystems announced Wednesday it plans to hire an additional 1,400 people next year at its Wichita plant. Spirit Chief Executive Officer Tom Gentile said in a news conference that the new hiring will come on top of the 1,000 new jobs the company said last year it planned to add as part of a \$1 billion expansion at its Wichita facility. The company reached that job goal within months, he said. Kansas Gov. Jeff Colyer called the latest announcement "the biggest news in this state in a long time."

The Wichita Eagle reported the new jobs will bring the number of employees at the company's headquarters in

Wichita from 11,000 on the day of the December 2017 expansion announcement to 13,400 employees by the end of 2019, Gentile said. Its website says the company has more than 15,000 employees worldwide. Spirit AeroSystems, Wichita's largest employer, revealed plans in May for a 150,000-square-foot building that will be part of the \$1 billion expansion.

Boeing sold its Wichita and Oklahoma operations in 2005 in a move that spun off the company now known as Spirit AeroSystems. It now builds aircraft parts for multiple commercial and defense customers, including Boeing 373 fuselages.



정부 고문들이 떠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막도 벗겨진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한 상원의원은 Jim Mattis 국방부 장관과 John Kelly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Rex Tillerson 국무 장관이 국가를 혼돈에서부터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attis를 마지막으로 이 세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목요일에 발표된 그의 갑작스런 사임 소식은 장군, 기업 지도자, 그리고 공화당이 대통령의 충동적인 결정을 제재하던 트럼프 정부의 "통제와 관리" 단계의 끝을 알렸다. GOP 지도자들의 조언에 대한 정부의 중단과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명령하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은 이미 분명했다. 1년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시달린 금융 시장은 위협적이었다. 트럼프 주변은 이제 트럼프의 충신들과 가족, 전직 폭스 뉴스 재능과 전 공화당원 의원의 작은 간부가 지배하고 있다. 민주당이 1월에 하원을 장악하면 백악관을 둘러싸고 치열한 조사와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트럼프가 훌륭한 정부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정부 고문들이 잇따라 사임을 선언하면서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가 대선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 성취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초기 고문 중 일부를 트럼프의 국가 중심 공약 성취에 장애물로 여겼었다. 한편 Mattis는 사임장에서 트럼프는 대통령

보다 국방부 장관이 되었어야 했다고 말했으나,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가 치열한 공방을 초래한 현재 그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직후, 미숙한 대통령의 외교 정책 결정을 제지하고자 하는 보좌관들은 그를 조언하는데 가장 능숙한 사람들로 최근까지 군사를 담당하던 이들을 지목한 바 있다. Mattis는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1년을 보냈던 Kelly와 H.R. McMaster와 함께 Trump의 직원 중 최고 계급을 채운 3명의 장군 중 한 명이었다. Mattis의 임명은 국방부의 민간인 성격을 보존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의회의 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Mattis의 사임은 그의 초기 노력이 트럼프 정책이 야기할 혼란을 늦추었을 뿐 그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Mattis의 사임 결정은 대통령과의 충돌로 이어졌고 이어 트럼프는 시리아로부터 미군을 철수시켰다. 또 트럼프는 미군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킬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와 Mattis의 분리는 행정부에서 보호막 역할을 한 고문과 공적인 붕괴가 일어났음을 일컫는다. 트럼프는 처음 ExxonMobil의 최고 경영자인 Tillerson을 두고 주요 인원 중 하나라고 칭송했으나 이후 비공식적으로 그를 해고했다. Kelly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백

악관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된 전직 해병은 공적으로 그를 굴욕에 빠뜨린 트럼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켈리는 2주 후에 사임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Mattis가 트위터를 통해 새출발을 알리는 것에 대해 존경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트럼프는 Mattis의 결정을 사임보다는 은퇴로 시연했다. 사임장을 통해 대통령과의 분

쟁이 사임의 이유였다는 것을 분명히 한 사람은 Mattis였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가 후임자를 지명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2월까지 백악관을 떠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위 고문들이 사임하는데 큰 우려를 표했다.

ANALYSIS: AS ADVISERS LEAVE, TRUMP'S GUARDRAILS COME OFF

By JULIE PACE and ZEKE MILLER

12/21/2018 WASHINGTON
Last year, during one particularly frenetic stretch in Donald Trump's presidency, a top Republican senator said there were three men guarding the country from chaos: Defense Secretary Jim Mattis, White House chief of staff John Kelly and then-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Within weeks, not one will be left in the administration. Mattis will be the last to go, and his abrupt resignation Thursday marks the end of the "contain and control" phase of Trump's administration — one where generals, business leaders and establishment Republicans struggled to guide the president and curb his most disruptive impulses. They were branded in Washington as the "troika of

sanity," the "axis of adults" and the "committee to save America." But as Trump careens toward his third year in office, their efforts are in tatters and most are out of a job. The early consequences of the new era were already apparent at year's end, with Trump on the verge of a government shutdown over the advice of GOP leaders and order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yria over Mattis' objections. A similar pull-back in Afghanistan appeared to be in the works. The financial markets, spooked by uncertainty from a nearly yearlong trade war, tanked. "We are headed toward a series of grave policy errors which will endanger our nation, damage our alliances &

empower our adversaries,” Sen. Marco Rubio, R-Fla., tweeted after Mattis’ resignation.

The shrinking circle around Trump is now increasingly dominated by a small cadre of longtime Trump loyalists and family members, ex-Fox News talent and former GOP lawmakers who were backbenchers on Capitol Hill before being elevated by the president. Attracting top flight talent will only get more difficult as more investigations envelop the White House once Democrats take over the House in January.

To some of Trump’ s most ardent supporters, the exodus leaves the president with a team that is more in line with his hardline campaign promises. They viewed some of his early advisers as obstacles to enacting the unabashed nationalist agenda they believe Trump had been elected to implement.

Mattis said in his resignation letter that Trump deserved a Pentagon chief “whose views are better aligned with yours.” It was not readily apparent who that might be, as Trump’ s decision in Syria drew widespread bipartisan condemnation this week. Soon after Trump entered the White House, aides seeking to restrain the brash and inexperienced president’ s foreign policy decisions recognized that those best adept at advising him were or had recently been in uniform. Trump, who never served himself but attended a military academy as a youth, granted them outsized respect.

Mattis was one of three generals who filled the top ranks

of Trump’ s staff, along with Kelly and H.R. McMaster, who spent a year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Mattis’ appointment required a congressional waiver to laws meant to preserve the civilian natur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Mattis and outgoing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Joseph Dunford became almost weekly dinner guests of the president early in his administration, particularly before first lady Melania Trump moved to Washington late last spring. The seemingly informal briefings for the president were in fact carefully orchestrated persuasion sessions designed to ease the president into abandoning some of his disruptive campaign rhetoric and accepting the advice of his senior national security advisers.

But Mattis’ departure highlights how those early efforts delayed Trump’ s disruption, rather than averted it.

On issues from trade to defense, Trump aides have tried eye-popping tactics to wait out the president — Gary Cohn, the former chair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went so far as to remove documents related to a tariff action from the Resolute Desk in hopes of convincing the president to adjust course — but their exertions proved fleeting.

Mattis’ decision to resign followed a clash with the president over withdrawing troops from Syria, where a small military force has been fighting Islamic State extremists. The president is also said to be seeking to draw down American forces in Afghanistan, another move with which



the Pentagon disagrees. Trump’ s split with Mattis followed a pattern of public breakdowns with advisers who served as guardrails in the administration.

Trump initially hailed Tillerson, the ExxonMobil chief executive, as out of “central casting” when he was tapped as secretary of state, before being unceremoniously discarded by the president earlier this year. Earlier this month, Tillerson described Trump as “pretty undisciplined, doesn’ t like to read, doesn’ t read briefing reports, doesn’ t like to get into the details of a lot of things, but rather just kind of says, ‘This is what I believe.’ ”

Kelly suffered a similar fate. Hired to bring order to the Oval Office, the retired Marine ultimately found he, too, could not control Trump, who subjected Kelly to a series of public humiliations. Kelly is slated to leave in two weeks. Trump treated Mattis with respect in announcing his departure via tweet, though he cast the move as a retirement rather than a resignation.

It was Mattis who made clear in his letter that he was leaving over a dispute with the president. Still, he said he would remain on through February to allow Trump time to nominate and confirm a successor, expressing concern about high-level turnover at the Pentagon at a critical juncture. Indeed: The last of the committee to save America was trying to mitigate the damage one last time.

—

G-20이 무역과 이민 문제에 동의할 동안 미국은 기후 변화를 두고 홀로서기를 한다

세계 정상급 경제 지도자들은 토요일 G-20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정부가 기후 변화나 이민 문제 등의 안건을 두고 다수의 동맹국들과는 맞지 않는 의견을 내놓자 세계 무역 시스템을 수리하겠다고 동의했다. 20개 회원국 모두가 서명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19개국은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반면, 미국만이 단독으로 협약에서 탈퇴했다. 공식 성명서는 세계 무역기구의 결함을 인정하고 세계 무역기구(WTO) 개혁을 촉구했으나, 미국에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보호주의"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의를 점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협의는 밤새 이루어진 마라톤 대화를 거쳐 회원국 간 분열이 심해지면서 종결되었다. 유럽 연합(EU) 관리들은 거의 모든 사안에서 미국이 주요 문제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WTO를 비난하고 중국과 EU를 겨냥한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중국은 강철에 대한 협상에서 타국을 상대로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무역에 대해 반대했고, 호주는 이민 정책이 너무 유해지길 원치 않았고, 터키는 기후 변화에 대해 다소 과한 정책이 아닌지 우려했다. 기후 관련 성명서의 최종 문구는 파리 협약 서명국인 19개국과 반대국인 미국이 각자의 의견을 번복하며 종결되

었다. 이에 더해, 서명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이전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최근 U.N. 보고서에 기반해, 향후 폴란드에서 개최될 U.N. 기후 회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파리 협약에서의 약속을 각 국가들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세계 무역에 관해 이 성명서는 20개국이 다자간 무역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러한 수정은 WTO의 불가피한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럽 협상 당국자는 이민 관련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 대표가 트럼프의 "deal-breaker" 언급을 너무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주자들의 흐름과 피난민을 지원하고 그들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미니멀리스트"언어를 고안해 냈다. 트럼프가 많은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해당 성명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국가들의 헌신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정상 회담을 지배하면서 유럽인들은 중재자 역할을 도맡았고, 트럼프를 겨냥한 보호주의 증진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면서 협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다. 의외로 건설적인 모습을 보인

국가는 러시아 였다고 EU 관리는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작전과 해외 정치적 개입에 대한 안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기후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선언문은 World Wildlife Fund와 Greenpeace와 같은 환경 단체들에 의해 환영 받았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노력이 필수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번 회

담에서 미국이 타국과 동의하지 않음을 통해 미국이 이상한 시선을 가지고 기후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Greenpeace는 주장했다.

정상 회담의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Mauricio Macri 대통령은 이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여러가지 도전 과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다음 G20 정상 회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이다.

G-20 AGREES ON TRADE, MIGRATION, US GOES OWN WAY ON CLIMATE

By ANGELA CHARLTON, LUIS ANDRES HENAO and PETER ORSI

12/01/2018

BUENOS AIRES, Argentina
Leaders of the world's top economies agreed Saturday to repair the global trading system as they closed a Group of 20 summit that saw the Trump administration at odds with many allies over the Paris accord on climate change and issues like migration. The joint statement signed by all 20 member nations said 19 of them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Paris climate accord,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withdrew from the pact under President Donald Trump, the lone holdout. The official communique acknowledged flaws in global commerce and called for reform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ut it didn't mention the word "protectionism" after negotiators said that had met re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Applause broke out in the convention center hall as the leaders, including Trump, signed off on the statement at the end of the two-day summit in the Argentine capital, the first time it has been held in South America.

The non-binding agreement was reached after marathon talks by diplomats stretched overnight and into daylight, amid deep divisions between member nations. European Union officials said the United States was the main holdout

on nearly every issue. Trump has criticized the WTO and taken aggressive trade policies targeting China and the EU. But China also pushed back in talks on steel, South Africa objected to language on trade, Australia didn't want the statement to be too soft on migration and Turkey worried it would push too far on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officials.

A senior White House official said the joint statement meets many U.S. objectives and stressed that it includes language about WTO reform. The official also noted other elements such as language on workforce development and women's economic development and a commitment by China to doing infrastructure financing on "transparent terms." According to the official, the unusual language on climate was necessary for Washington to sign on, and Turkey, Saudi Arabia and Russia had appeared sympathetic to the U.S. position but ultimately stayed with the other countries.

The final language of the statement says, regarding climate, that 19 nations that are signatories to the Paris accord reiterate their commitment to it while the U.S. reiterates its decision to withdraw. It also notes a recent U.N. report that warned damage from global warming will be much worse than previously feared, and expresses support for an upcoming U.N. climate meeting in Poland meant to nail down how countries will meet promises made in the Paris accord.

On global commerce, the statement says the 20 coun-

tries support multilateral trade but acknowledge that the current system doesn't work and needs fixing, via "the necessary reform of the WTO to improve its functioning." On migration, European officials said the U.S. negotiator said too much talk about it would have been a "deal-breaker" for Trump. So they came up with "minimalist" language that acknowledges growing migrant flows and the importance of shared efforts to support refugees and solve the problems that drive them to flee. The statement also shows a commitment to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despite Trump's rejection of many of those rules. With trade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dominating the summit, the Europeans sought to play mediator and also scaled back their expectations, cutting out mention of rising protectionism.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called it a victory that the U.S. signed on to the statement at all, given the tensions going into the talks. Perhaps surprisingly, one country that was seen as particularly constructive was Russia, the EU officials said. Despite tensions over its military actions on Ukraine and political interference abroad, Russia supports international efforts on trade and climate. Summits like this "don't take away contradictions" among G-20 leader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said. But he added that "these meetings are useful because countries that are fighting" can focus on problems they all agree on such as WTO re-



form. While a statement isn't legally enforceable, the Europeans see it as proof that the G-20 is still relevant and that multilateralism still works. Last weekend, Russia seized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and their crews in an incident escalating a tug-of-war that began in 2014 when Russia annexed Ukraine's Crimean Peninsula and supported separatist rebels in eastern Ukraine. Germany and France have sought to mediate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Merkel spokesman Stefan Seibert said she and Putin agreed that the four countries should hold further talks at the "adviser level."

Macron and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both said they had pressed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for international involvement in investigating the October murder of dissident Saudi journalist Jamal Khashoggi at the country's consulate in Istanbul. May said she spoke to the crown prince about the importance of "a full, credible, transparent investigation that identifies those who are involved and that ensures that those involved are held to account."

Macron did similar, but said bin Salman only "took note" of his demands and expressed hope the prince would respond soon. Turkish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lamented that the issue of Khashoggi's killing was not a part of the official agenda and said the only leader who brought it up was Trudeau.

Trump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met later over dinner after the summit's close. Their countries have been embroiled in an escalating trade war with new U.S. tariffs on China goods set to take effect a month from now. The next G-20 summit is to be held in Osaka, Japan, in June 2019. Putin said that when Japan takes over, "there will be proposals on perfecting (the WTO). This is already something."

캔사스 한인업소록 (Kansas Korean Business Directory)

(업소변경, 삭제, 새로운 업소 정보는 kim@kckoreanjourna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가전제품 수리

A-2 Vacuum and Sewing Machine
816-456-9691

1523 Main St., Grandview, MO 64030

건축/집수리

Cho's Upholstery, 816-444-8656
7702 Wornall Rd KC, MO 64114

Ko Brother's Contractor Builder
913-219-2401

15455 Overbrook Ln., Stanley, KS 66224
Moon Tile 913-522-2311,

12817 W 77th St., Lenexa, KS 66216

Jin D Kim Construction INC, 816-810-6568

8110 N LONDON DR, KC, MO 64151

Young Kim Co, 913-634-2680

7575 W.106th St #13-14, OP, KS 66212

Yi's Home Repair, 913-634-4725

8809 Cottonwood St, Lenexa, KS 66215

구두수선

America Shoe Repair, 816-524-7555

618 SW 3rd St G, Lee's Summit, MO 64063

ACME Shoe Rebuilders, 913-682-5591

211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Rosana Shoe Hospital & Tailor

913-469-8070

7556 W 119th, OP, KS 66213

Westfield Shoe Repair, 913-334-2506

8131 State Ave, KC, KS 66112

금융

Family Financial Group:

용자 (장경호) 816-878-8778

106 South Main St, Spring Hill, KS 66083

Merrill Lynch (최원준) 913-906-5299

3401 College Blvd, Leawood, KS 66211

꽃집

Judy's Flowers & Gift, 913-492-1600

12267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델리

Break Time Plus, 816-221-4146

2405 Grand Blvd #108, KC, MO 64108

B&L Sub 913-451-8585

7015 College Blvd, #120, OP, KS

Cafe 84, 913-327-8899

10801 Mastin Blvd #190, OP, KS 66210

Corporate Cafe, 913-451-9078

9401 Indian Creek Park Ste #175, OP, KS

Gino's Deli, 913-342-8225

825 N. 7th Street KC, KS 66101

Hill Top Deli, 913-451-3744

10955 Lowell, #120, OP, KS 66210

In And Out, 816-421-5041

1007 Main St, KC, MO 64106

Hyundai Korean Restaurant, 913-682-5352

749 Shawnee, Leavenworth, KS 66048

Neo Delicatessen, 816-421-1788

1000 Walnut St, Ste 205, KC, MO 64106

4 Star Deli & Catering, 913-338-3065

7400 W. 110th St, OP, KS 66210

미용재료

A.Q.Beauty Supply, 816-761-8815

8708 Blue Ridge Blvd, KC, MO 64138

A.Q.Beauty Supply

3812 E. Truman Rd, KC, MO, 816-241-

3123

3136 Stadium Dr, KC, MO, 816-861-7068

AQ Beauty Supply, 913-421-1145

1981 N. 63rd Drive KC, KS 66102

A.Q.Beauty Supplies, 913-758-1171

508 Delaware, Leavenworth, KS 66048

Bannister Beauty Supply & Bazaar

816-761-4300,

8236 Bannister Rd, KC, MO 64134

Beauty Essence, 816-753-8199

1319 Brush Creek Blvd, KC, MO 64110

Beauty N More, 816-753-2199

3814 Main St, KC, MO 64111

Super Bunny's Wigs & Boutiques

913-342-2176

3748 State Ave., KC, KS 66102

CJ's Gold Department Store, 816-444-1500

1240 E. Meyer Blvd, KC, MO 64131

Tres Bliss Beauty/Glamourama, 816-361-5099

1240 E Meyer Blvd, KC, Missouri 64131

GenX, 816-333-7888

1104 E Meyer Blvd, KC, MO 64131

Ebony Wigs & Beauty Supplies, 816-421-0450

1216 Mcgee, KC, MO 64106

Evelyn's Beauty Supply, 816-842-1400

1911 Baltimore, KC, MO 64108

King's Beauty Supply, 816-444-4333

7720 Troost Ave, KC, MO 64131

K.C. Discount Warehouse, 816-371-7766

932 Minnesota Ave, KC, KS 66101

Mid-K Beauty Supply,

1111 Brooklyn Ave, KC, MO, 816-421-1145

3523 Prospect Ave, KC, MO, 816-921-2255

Metro Beauty Supply, 816-444-9562

1636 E. 63rd St, KC, MO 64110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400 NW Barry Rd, KC, MO 64155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220 NE Barry Rd, KC, MO 64155

Unique Beauty Supply, 816-761-5255

7019 E 95th Street, KC, MO 64134

JT Beauty Supply, 816-763-1666

6851 Longview Rd, KC, MO 64134

Sonya Beauty Supply & Variety

816-767-9575

12030 Blue Ridge Blvd, Grandview, MO

Two Brother's Beauty Supply

843 Minnesota Ave, KC, KS, 913-621-1212

6429 State Ave., KC, KS, 913-788-1212

Wig City, 913-633-2550

10701 Shawnee Mission Pkwy

Shawnee, KS 66203

미장원

Great Cuts, 913-341-5265

10312 Metcalf, OP, KS 66212

Hair Care Family, 816-257-5321

17004 E. 24 HWY, Independence, MO

64056

Hyundai Beauty Salon, 913-682-6688

712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Sue's Beauty Salon, 913-682-2337

215 S. 5th Street, Leavenworth, KS 66048

Koreana Salon, 913-701-9417

12020 Blue Valley Pkwy, Ste 212, OP, KS

Salon DD, 913-777-0052

7800 Shawnee Mission Pkwy, OP, KS 66202

D & S Salon, 913-428-7827

6471 Quivira Rd, Shawnee, Kansas 66216

베이커리/도넛

Daylight Donuts, 913-884-8400

828 E. Main Gardner, KS 66030

Dave's Bakery & Deli, 816-461-0756

214 W. Maple, Independence, MO 64050

Daylight Donuts, 913-459-8219

8736 Lackman Lenexa, KS 66219

Tours Les Jours, 913-383-2828

10348 Metcalf Ave, OP, KS 66212

변호사

Kutak Rock, L.L.P. (김준범) 816-502-4612,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Ray E. Sousley (Ray Sousley) 816-931-5000

800 Westport Rd, KC, MO 64111

Ji Hyun (Jennifer) Kim, Corporate Finance

Lawyer Stinson Leonard Street

816-691-3464

1201 Walnut Street, Ste 2900, KC, MO

64106

Susan Son, McCrummen Immigration Law

2005 Swift Ave., North KC, MO 64116

병원

건강한의원 (Kan Acupuncture Clinic)원장 윤대
일 314-317-9900, 12935 Olive Blvd.

St. Louis, MO 53141 (주주식당옆)

로한 척추신경 & 침술 클리닉/ 로한 스킨 클리닉

816-444-1218,

404 Bannister Rd. Suite B, KC, MO 64131

www.lohanchiro.com, www.lohanskin.com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 병원:

913-649-2044,

7050 W 105th St. O.P. KS 66212

Kacclinic.com

장영준 치과 (State Ave Dental Office)

913-299-8554, 8476

6708 State Ave, KC, KS, 66102

Bethesda 척추/ 침술 클리닉: 913-341-1930

8014 State Line Rd. Suite 101 Leawood KS

Grandview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Dr. Kyunghwan An)

816-217-0020, 12421 Suite O Blue Ridge

Bldv., Grandview, 64030

Oriental Acupuncture & Herb (김진수)

816-942-7879

12655 State Line Rd, KC, MO 64145

Excelsior Springs Nursing (황경호)

816-630-3145

1003 Meadowlark Ln, Excelsior Springs,

MO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Yoon Hang Kim MD 김 윤항 의학박사

대체의학, 침술, Phone 913-588-6208

4000 Cambridge St., Mailstop 1017, 2nd

Floor Sudler, Suite 2053, Kansas City, KS

66160

보석

A&G Jewelry 913-281-4794

4301 State Ave, KC, KS 66102

Han's Jewelers

913-299-3655, 7700 State Ave, KC, KS

913-648-5100, 10446 Metcalf Ave, OP, KS

보안시스템

Z & H Electronics 913-250-0677

605 Brookwood, Lansing, KS 66043

보험과 부동산/세무회계

BizPro 비즈 프로 세무, 회계/플래티넘 부동산 :

Junsu Kim, Mia Bahn, 913-383-8558

10322 Metcalf Ave. O.P. KS 66212,

의료보험 에이전트 : 이리사 913-217-5169,

7180 W 107th St, #10, OP, KS

LeeLisa2014@yahoo.com

Bae Brothers Co (816) 333-1285

1240 E Meyer Blvd, Ste A, KC, MO 64131

Marks, Nelson Vohland & Campbell, Radetic

LLC (박경훈) 913-498-9000

7701 College Blvd Suite 150, OP, KS

Insurance Agent, Lisa Lee Moran, 913-

217-5169, lisa@autohomekc.com, 7180 W

107th St #10, OP, KS 66217

부동산 중개

블락 부동산 BLOCKS Real Estate

Jennifer Jang, 장지연, 816-729-6232

jjang@blockllc.com

Paul Shin, 816-560-0988

pshin@moveiwith platinum.com

Explore Real Estate (박영림) 913-522-2475

11267 Strang Line Rd, Lenexa, KS 66215

Keller William Realty Partners Inc. (양혜연)

913-266-5897, 913-484-6126 8005 W

110th St Suite 100, OP, KS 66210

K & K Inc.(이미애) 816-716-9001

1714-1726 W. 39th St, KC, MO 64111

6413 N. Park Ave, Gladston, MO 64118

사건관/프레임

Art & Frame 웨어하우스

98854 N Boardwalk, KC, MO, 816-584-8009

9216 Metcalf Ave, OP, KS, 913-385-9199

1032 W 136th St, KC, MO, 816-941-2307

상담/용역

Premier Medical Personnel (Nancy)

913-345-8484, 11038 Oakmont, OP, KS

세탁소

Country Meadows Laundrymat

816-524-5677

908 NE. Chipman, Lee's Summit, MO 64085

Country Cleaner, 816-373-3324

17201 E. 40 Hwy #109, Independence, MO

Central Coin Laundry 913-621-2224

1036 Central Ave., KC, KS 66102

Dry Cleaner 816-891-8448

10018 N, W, Executive Hill Blvd, KC, MO

Diamond Cleaner 913-642-8353

6701 W. 75TH ST, OP, KS 66204

Easy Cash & Wash 816-924-3235

7000 Eastwood Trfy, KC, MO 64129

Holiday Cleaners (913) 631-6181

7945 E Frontage Rd, OP, KS 66204

Ida's Daisy Fresh Cleaners 816-436-6648

7521 N. Oak TRFWY, Gladston, MO 64118

Independence Coin Laundry 816-252-7776,

10816 E. 23rd St South, Independence, MO

Prestige Cleaners 816-763-2522

12200 Blue Ridge EXT #B, Grandview, MO

10018 NW. Executives Hill Dr, KC, MO
Tae's Laundry, 913-782-9345
223 S. Kansas Ave, Olathe, KS 66061
VIP Cleaner, 913-894-6606
10400 W. 103rd St, OP, KS 66215
Won's Cleaners, 913-722-1681
5921 Johnson Dr., Mission, KS 66202
Westwood Village Laundromat
913-432-8479
2801 W. 47th St., Westwood ,KS 66205
Young's Dry Cleaning and Laundromat
1274 Merriam Ln, KC, KS 66103
스프링클러
Heritage Irrigation Co., 913-205-5922
11511 S Strang Line Rd Suite A, Olathe, KS

식당
조선 갈비 (Chosun), 913-378-3534
12611 Metcalf Ave, OP, KS 66213
초가 (Choga), 913-385-2151
6920 W. 105th St, OP ,KS 66212
소반 (Sobahn) 913-384-1688
7800 W 63rd St #3, OP, KS 66202
Bob Wasabi, 816-753-5797
1726 W 39th St, KC, MO 64111
Gangnam Restaurant (913) 383-8888
1032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Cafe Vie (베트남 쌀국수) 913-558-0600
10330 Metcalf Ave, OP, KS 66212
Haru Sushi, 816-942-1333
13133 Stateline Rd, KC, MO 64145
Kokoro Maki Japaness Restaurant
785-838-4134
601 Kasold Drive #102, Lawrence, KS 66049
Maru Sushi and Grill, 913-258-5879
5621 W 135th St #2620, OP, KS 66224
New Peking, 816-531-6969
540 Westport Rd, Kansas City, MO 64111
O Cafe (Korean), 785-312-9211
1530 W 6th St, Lawrence, KS 66044
Red Snapper, 816-333-8899
8430 Ward Pkwy, KC, MO 64114
Sushi Uni, 913-322-8667
12841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Wa Japaness Restaurant, 785-843-1990
740 Massachusetts, Lawrence, KS 66044

식품점
동양식품 Oriental Supermarket
913-341-3345
10336 Metcalf Ave, OP, KS 66212
중양식품 Joong Ang Grocery
913-384-4989
7800 W 63rd St #1, OP, KS 66202
현대 식품점, 913-651-2622
749 Shawnee St., Leavenworth, KS 66048
Arirang Market, 913-680-1381
626 B Cherokee St, Leavenworth, KS 66048
Chunco Foods, 816-283-0716
1400 E. 2nd St., KC, MO 64106
JOY 식품, 913-321-3177
930 Minnesota Ave, KC, KS 66010

여행사
Wing Gate Travel , 913-451-9200
8645 College Blvd #100, OP, KS 66210

오디오
Sound of Stereo,913-281-4601
920 Minnesota Ave KC, KS, 66101

의류
Bargain City Bazaar, 913-342-7002
916 Minnesota Ave, KC, KS 66101
Fashion In Motion, 816-361-2552
1256 E. Meyer Blvd, KC, MO 64131
Jung Tailoring Shop, 816-228-9191
103 SW State Route 7, Blue Springs, MO
Rome's Boutique, 913-772-6885
414 Delaware St., Leavenworth, KS 66048
So Young Fashion, 816-421-1171
400 Grand Ave #66, KC, MO 64106
Young Fashion, 816-861-0006
3116 Prospect Ave, KC, MO 64128

Midway Shopping Center, 913-281-7035
4305 State Ave, KC, KS 66102

선물/화장품
동양 백화점/비디오 Oriental Gifts & Video
913-961-2533
10346 Metcalf Ave, OP, KS 66212
Mary Kay, 913-397-6706
11730 W. 135St #11, OP, KS 66221
Olathe BP, 913-402-9331
1605 E Santa Fe, Olathe, KS 66061

의류수선
Speedy Alteration, 913-248-1151
7727 Quivira Rd, Shawnee Mission, KS 66216
Corinth Alteration, 913-383-9560
4185 Somerset Dr, Praire Village, KS 66208
Camelot Court Alteration, 913-327-5525
11831 Roe Ave, Leawood, KS 66209
Kim's Tailor Shop, 913-451-2727
4872 W. 119th St, Leawood, KS 66209
Kim's Alteration, 816-228-1355
919 W. 40 HWY, Blue Springs, MO 64105
K.C.Alteration, 816-474-8333
814 Grand Ave., KC, MO 64106
Lee's Alteration, 816-765-2255
7011 E. Bannister Rd., KC, MO 64134
Leawood Alteration, 816-942-8057
12925 State Line., KC, MO 64145
Lenexa Fashion & Alteration, 913-888-0960
14924 W. 87th St, Lenexa ,KS 66215
M & J Tailor Shop, 913-782-8107
18280 157 ST, Olathe, KS 66062
Maxines, 913-341-2534
9528 Hadley, OP, KS 66212
Park's Alteration, 816-221-3129
304 E. 21st Ave., KC, MO 64116
Tom Tailor Shop, 913-888-8737
10392 Mastin, OP, KS 66212
Quivira Taylor, 913-851-4991
11670 W. 135th St, OP, KS 66221

자동차 수리/판매/부속
Elim Motor (김중수) - 판매, 913-371-4841
29 S. 18th St, KC, KS 66102

Jo's Auto & Body Center Inc.
(정판조) - 수리,816-923-0330
3333 Stadium Dr, KC, MO 64128
Shawnee Auto Motive Center
(권정수) - 수리 913-631-3497
11015 W. 58th St, Shawnee ,KS 66023

전자회사
Maxon America, Inc., 913-859-9515
11535 W 83rd Ter, Lenexa, KS 66214
www.maxonamerica.com
DataLocker, 913-310-9088
7007 College Blvd #240, OP, KS 66211

잡화
Dollar Mart, 816-861-2223
3105 Prospect Ave, KC, MO 64128
Hyesuk Haglin, 816-822-0375
6025 State Line Rd., KC, MO 64113

조경/잔디
Lee's Lawn & Tree Service, 816-524-7582
11714 Milton Thompson Rd
Lee's Summit, MO 64068
Young Brothers Lawn & Tree Service
816-616-3292, 816-318-1667
2101 E 183rd St, Belton, MO 64012

주류 판매
Bi - Lite, 816-761-7337
12818 S. 71 HWY, Grandview, MO 64030
C & J Enterprise Inc, 816-253-9112
#2 Robin Dr, Agency, MO 64401
Deluxe Liquor, 816-231-8119
4205 E. 24th St, KC, MO 64127
ISO Growell Corp, 913-383-5344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J&L Discount Wines & Spirits, 913-648-1770
10304 Metcalf Ave., OP ,KS 66212
KC Liquor, 913-441-8423
10320 Kansas Ave, Bonner Springs, KS

LG Infocomm USA, INC, 913-498-5912
6201 College Blvd Suite 350, OP, KS 66211
Ray's Discount Liquor, 913-268-9862
7422 Nieman Rd., Shawnee, KS 66203
Shamrock Liquor
10326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966-9917
11810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763-3380
Sommer's Liquor, 913-371-2020
146 S. 18th St, KC, KS 66102
Tec Net Int'l Inc, 816-584-8638
1420 NW Vivion Rd #109, KC, MO 64118
Tekk Incorporated, 816-746-1098
226 NW. Parkway, Riverside, MO 64150
Westport Wine & Liquor, 816-561-3500
1106 Westport Rd, KC ,MO 64111

주유소
INNER CITY OIL, 913-371-4521
540 S. 10 th Street, KC ,KS 66102
Swansea Inc./Phillip 66
913-488-163/785-842-6816
1801 W 2nd St., Lawrence, KS 66044

청소용품
T.B.S Co. Inc., 913-722-1106
3054 S.24th Street, KC, KS 66103
www.jaytbs.com

청소
Am-Ko Building Maintenance, INC.
(John Lee) 913-980-8888
P.O. Box 2277, Shawnee Mission, KS 66201
GBM, 913-209-3639
12057 Hayes Ln #144., OP, KS 66213
G.Y. Janitorial Service, 913-239-9848
13908 Bradshaw., OP ,KS 66221
HBM INC., 913-321-3303
400 State Ave, KC, KS 66106
Jong's Building Service, 816-651-6007
11717 W. 99th St, OP ,KS 66214
Lee's Janitorial Service, 913-962-0742
7110 Long Ave., Shawnee, KS 66216
Park's Maintenance, 816-243-5669
7512 N. Rhode Ave KC ,MO 64153
World Wide Cleaning Company
913-290-9638
13403 Ballentine Rd, OP, KS 66213
Young's Service Corp., 913-683-0308
2021 Cambridge., Leavenworth ,KS 66048

카운셀링
캔사스 시티 카운셀링 센터
(KC Counseling Center) 916-929-5557
10100 Metcalf Ave, O.P. KS 66212

컨비니언스 스토어
ConerSide Market, 816-254-2221
108 N. Sterling Ave, Sugar Creek, MO 64054
Pop's Quik Shop, 816-483-5095
3402 E. 9th St., KC ,MO 64124

컨설팅
Sook Park, 785-296-3760
1000 S. W. Jackson Ave # 100., Topeka ,KS

태권도
Choon Lee's Academy Of Taekwondo
121 NE. 72nd St., Gladston, MO
816-439-5909
1975 N. 63rd St., KC ,KS
913-299-5425,
11453 W. 64th St, Shawnee, KS 66203
913-631-1414
Ko's Black Belt Academy
3413 NW. Mill Dr., Blue Springs, MO 64015
816-224-0000
3923 S. . Noland, Independence, MO 64055
816-254-0000
818 SW Blue Pkwy, Lee's Summit, MO 64063
816-525-4300,
2045 W. Kansas, Liberty, MO 64068
816-781-3800
11632 W. 135th St, OP, KS 66221

913-897-1300,
10528 Metcalf, OP, KS 66212
913-341-2000
Kim's Taekwondo Pavilion, 913-897-0456
10002 W. 129th St, OP, KS 66213
USA Taekwondo Academy, 913-685-4858,
KMC Taekwondo Academy, 913-2052-0232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Korea America Taekwondo Education Inc.
2127 E 151st Olathe, KS 66062
913-390-0888
12817 W. 87th Street Parkway Lenexa, KS 913-310-9600
22338 W. 66th Street, Shawnee, KS 66226
913-441-6520,
19321 E. US-40 Highway Suite P
Independence, MO 64055
816-795-1090
3715 W. 133rd Street, Leawood, KS 66209
913-498-0910
14877 Metcalf Ave., OP, KS 66223
913-851-1960
Kim Dokhan USA, 816-356-8282
6129 Blueridge Blvd Raytown, MO 64133
Master's Martial Arts Academy
913-681-1022
14868 Metcalf Ave, OP, KS 66223
Pak's Academy Of Taekwondo
411 Pine St, Raymore, MO 64083
816-322-5000
SunYi Traditional Taekwondo Academy
785-266-8662
410 SW 33rd St, Topeka, KS

투자/상담
KJ Consulting
P.O. Box 1775, Lawrence, KS 66044

특수기술
Spartan Laser Inc., 816-353-7700
6501 Hadley, KC, MO 64133

학교/학원/보육
놀이방: ABC Day Care, 913-651-6907
1510 10th Ave., Leavenworth, KS 66048
학습지: KUMON 구분 영어,수학
8502 W 133rd St, OP, KS, 913-897-1111
151st St. & Nall Ave., 913-681-0400
kumon.com/stanley
골프: 개인교습, 김준배 PGA 프로골퍼,
913-897-3809, 913-558-7997/
www.golfop.com, jbk golf@gmail.com
미술: 이안 아트스쿨, 816-646-1376
newspring78@naver.com
www.artstudioian.com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음악: KC 음악학원 (피아노 : 913-272-1177,
바이올린 913-687-6784)
한글교육 : 캔사스 시티 한국학교 816-469-
8110.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호텔/모텔/여관
Crown Lodge, 816-353-3000
8500 E State Rte 350, KC, MO 64133
Comfort Inn, 816-632-3909
1803 Comfort Lane, Cameron, MO 64429
Ramada Inn, 620-343-2200
2700 W. 18th Ave., Emporia, KS 66801
Village Inn, 785-242-4433
2520 S. Main St., Ottawa ,KS 66067

화방/사진
Cha Fine Art Studio, 913-962-2118
6656 Charles Dr., Shawnee, MO 66216
Diane Klynn-Yi Portrait, 816-532-8026
14605 Killarney Lane, Smithville, MO 64089

히팅/클링
Bee Tech Service, 913-980-2464
1106 S Palmer Ln, Olathe, KS 66061
Dokko's Specialty Service, 913-685-0451
12824 Mastin St, OP, KS 66213

기타
Yedang Village LLC, 913-972-6645
13881 138th St. #104, Olathe ,KS 66062



동부의 실리콘 벨리: 구글이 뉴욕에 \$ 1B 확장 계획을 세우다

실리콘 벨리가 실리콘 국가가 되고 있다. 구글은 뉴욕에 새로운 오피스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을 월요일 발표했다. 이로써 인터넷 검색 엔진 거물인 구글은 고용인의 수를 두 배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구글의 계획은 시애틀 -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제외한 최대 규모의 기술 산업 확장이며, 이는 앞서 아마존과 애플이 새로운 지역에 대규모 확장을 진행한 것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Forrester Research의 수석 분석가인 Andrew Bartels는 전통적으로 미국 기술 활동의 주요 중심지였던 베이 지역이 점차 비싸고 혼잡해 짐을 많은 대형 기술 회사들이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은 월스트리트와의 근접성을 제공하고 베이 지역에 이어 기술 관련 인재와 거대한 기반이 자리하고 있어 기술 창업이 집중되고 있다고 Bartels는 말했다. 캘리포니아 Menlo Park에 기반한 페이스북이 뉴욕에 2,0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 처럼,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 뷰에 본사를 둔 구글은 뉴욕시의 웨스트 빌리지 지역의 허드슨 강을 따라 170만 평방 피트 이상의 복합 단지를 설계할 것이라고 Ruth Porat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는 블로그 포스트에서 밝혔다. 구글은 거의 20년 전에 뉴욕에 첫 번째 사무실을 개설해 현재 뉴욕시에서 7,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움직임은 빠르게 확장되

고 있습니다. 구글은 올해 초 첼시 마켓 빌딩을 24억 달러에 사들여 Pier 57에서 더 많은 공간을 임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rat은 한 달 전 개최된 기술 컨퍼런스에서 구글이 뉴욕에서 확장할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이 소식은 한 달 전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이 뉴욕의 롱 아일랜드 시티 지역과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새로운 본부를 세우고 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구글은 여전히 인터넷 검색, 이메일, 웹 브라우저, 디지털 매핑, 온라인 비디오 및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에의 성공을 토대로 사무실을 확장해 본사 근처에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구글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의 한 토지에 직원 주택을 포함하는 새 캠퍼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마이크로 소프트는 워싱턴 주 레드몬드 에 있는 본사 건물을 18,000명의 건설 프로젝트로 변형하여 8,000명의 추가 직원을 확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지역에서 약 47,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뛰어난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려는 기업 간의 경쟁은 임금 인상을 초래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평균 집 값을 1백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있다. 집값 인상으로 인해 많은 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다른 지

역에서 살기를 선호하기 시작하며 주요 기술 회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직원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Google은 2020년까지 새로운 캠퍼

스로 이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Porat는 회사의 이번 투자로 향후 10년 동안 뉴욕의 Google 직원 수를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SILICON VALLEY EAST: GOOGLE PLANS \$1B EXPANSION IN NEW YORK

By MAE ANDERSON

12/17/2018

Silicon Valley is becoming Silicon Nation. Google announced Monday it will spend more than \$1 billion to build a new office complex in New York City that will allow the internet search giant to double the number of people it employs there. It is the tech industry's latest major expansion beyond the Seattle-San Francisco Bay corridor. It follows recent steps by Amazon and Apple to set up large operations well outside their home turf. Tech companies are "coming to the realization

that the Bay Area,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the major center of tech activity in the U.S., is getting expensive and crowded," said Andrew Bartels, principal analyst at Forrester Research.

"A lot of vendors are coming to the realization that 'We can probably find top talent elsewhere at a more affordable costs, and perhaps a better style of life for employees who may be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The Northeast is attractive because of its large concentration of highly educated young people. New York

in particular also offers proximity to Wall Street and already has the second-biggest concentration of tech startups behind the Bay Area and a large base of tech employees, Bartels said. Facebook, based in Menlo Park, California, has over 2,000 employees in New York.

Google, based in Mountain View, California, will fashion a complex of more than 1.7 million square feet along the Hudson River in the city's West Village neighborhood, Ruth Porat, senior vice president and chief financial officer, said in a blog post. Google opened its first office in New York nearly 20 years ago and now employs 7,000 people in the city. Its footprint is expanding rapidly. Google said earlier this year that it would buy the Chelsea Market building for \$2.4 billion and planned to lease more space at Pier 57, both along the Hudson about a mile north of the newly announced complex. Porat telegraphed Google's plans to double down in New York a month ago during a technology conference.

"Not everybody — big surprise — wants to live in Silicon Valley, so we want to make sure we have the opportunity to build vibrant centers across the country," she said.

The news follows Seattle-based Amazon's announcement a month ago that it would set up

new headquarters in New York's Long Island City neighborhood and in Arlington, Virginia, creating upwards of 25,000 jobs in each location.

But it's not just the East Coast that is benefiting from the expansion. Apple, based in Cupertino, California, said last week that it plans to build a \$1 billion campus in Austin, Texas, that will create at least 5,000 jobs. Even as it looks elsewhere, Google is still buying offices and drawing up plans to construct new campuses near its headquarters, as it tries to build upon its success in internet search, email, web browsers, digital mapping, online video and smartphone software to make money in other markets such as health care and internet-connected homes. The company recently agreed to pay more than \$100 million for a swath of land in downtown San Jose, California, for a big new campus that will include employee housing.

Microsoft likewise is overhauling its headquarters in Redmond, Washington, with an 18-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that will make room for an additional 8,000 workers. It currently employs about 47,000 in the area.

But the competition for programmers is driving salaries higher, which in turn is catapulting the average prices of homes in many parts of the San

Francisco Bay Area above \$1 million. Many high-tech workers are choosing to live elsewhere, forcing major tech companies to look in new places for the employees they need.

Google hopes to move into the new campus by 2020. Porat said that the company's most recent investments give it the ability to more than double the number of Google employees in New York over the next 10 years.

Tech companies see New York as a way to gain a new perspective, one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Silicon Valley, which can be seen as an "out-of-touch echo chamber," Bartels said.

"New Yorkers consider themselves to be more in tune with the reality of life in U.S. urban centers and believe this helps them innovate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more closely aligned with the needs of the average American," he said.

—

A STRONG ECONOMY TRANSLATES INTO BIG SALES THIS HOLIDAY

Americans buoyed by a strong economy pushed holiday sales growth to a six-year high.

Retail sales rose 5.1 percent between Nov. 1 and Dec. 24 from a year ago, according to Mastercard SpendingPulse, which tracked spending online and in stores across all payment types, including those who paid by cash or check. Total sales topped \$850 billion this year, Mastercard said.

"From shopping aisles to online carts, consumer confidence translated into holiday cheer for retail," said Steve Sadove, a senior adviser at Mastercard and the former CEO of the department store chain Saks.

Online sales continued to grow, up more than 19 percent from a year ago. Last week, Mastercard said online sales made up 13 percent of total retail sales.

Clothing sold well this year — up nearly 8 percent from last year, the biggest growth for apparel sales since 2010, Mastercard said. Home furniture sales rose 2.3 percent, while electronics and appliances slipped 0.7 percent. Shoppers spent less at department stores, which Mastercard said was partly due to store closings. But shoppers did head to the websites of department stores, where sales rose 10.2 percent, Mastercard said. Traditional retailers have been updating their websites and smartphone apps, as well as making it easier for shoppers to buy online and then pick up their items in store.



미 농무부 (USDA)가 푸드 스탬프 요구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식량 원조를 받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노동 필요 조건을 강화한다. 미 농무부는 취업 자격이 있는 성인이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해 꾸준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정부의 규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과 보전 프로그램을 재승인 하며 8,600억 달러에 달하는 농장 법안에 서명한 날에 제안되었다. 또 같은날 약 4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종결지었다. 현재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어린이가 없는 유능한 성인은 SNAP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20시간 일해야 한다. 하원 법안은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수령자의 연령을 49세에서 59세로 인상하고 6세 이상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하원의 조치는 다른 빈곤층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이 SNAP 자격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고자 했다. 트럼프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들은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현재 행정부는 규제 규칙을 통해 SNAP 프로그램을 축소하려고 한다. ABAWD로 알려진 부양 가족이 없는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성인은 20시간 근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3년 당 3개월간만 SNAP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실업률이 10% 이상이거나 실업률이 충분하지 않은 주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각 주에서는 취업 자격이 있는 성인 인구의 15%에 게 혜택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만약 한 주가 15%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후 분배를 위해 남은 분량을 저축할 수 있는데 Sonny Perdue 농업부 장관은 이를 "비축량"이라고 부른다.

미 농무부의 제안된 규칙은 시 또는 카운티의 실업률이 7%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주 정부의 능력을 박탈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 년간은 적용할 수 있으나 길어질 경우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각 주는 15% 이상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새로운 규칙은 특정 관할권보다 큰 지리적 영역에 대한 주의 권리를 금지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일부 보수 주의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굶주린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한 미국인을 생성할 것이라 주장하는 옹호론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번 여름 발표된 Brookings Institution의 연구에 따르면 엄격해지는 노동 조건은 이미 고용이 일정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House Agriculture Chairman인 Michael Conaway는 하원 농장 법안의 SNAP 업무 요구 사항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인물이었

으며 협상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캔사스 주 공화당 상원 의원 Pat Roberts 과 농업위원회의 민주당 상원 의원 Debbie Stabenow는 SNAP에 변동

없이 상원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비난했다.

USDA MOVES TO TIGHTEN WORK REQUIREMENTS FOR FOOD STAMPS

By JULIET LINDERMAN

12/20/2018 WASHINGTO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etting out to do what this year's farm bill didn't: tighten work requirements for millions of Americans who receive federal food assistance.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n Thursday proposed a rule that would restrict the ability of states to exempt work-eligible adults from having to obtain steady employment to receive food stamps.

The move comes the same day that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867 billion farm bill that reauthorized agriculture and conservation programs while leaving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which serves roughly 40 million Americans, virtually untouched.

Passage of the farm bill followed months of tense negotiations over House efforts to significantly tighten work requirements and the Senate's refusal to accept the provisions.

Currently, able-bodied adults ages 18-49 without children are required to work 20 hours a week to maintain their SNAP benefits. The House bill would have raised the age of recipients subject to work requirements from 49 to 59 and required parents with children older than 6 to work or participate in job training. The House measure also sought to limit circumstances under which families that qualify for other poverty programs can automatically be eligible for SNAP.

None of those measures made it into the final farm bill despite Trump's endorsement. Now the administration is using regulatory rulemaking to try to scale back the SNAP program.

Work-eligible able-bodied adults without dependents, known as ABAWDs, can currently receive only three months of SNAP benefits in a three-year period if they don't meet the 20-hour work requirement. But states with

an unemployment rate of 10 percent or higher or a demonstrable lack of sufficient jobs can waive those limitations. States are also allowed to grant benefit extensions for 15 percent of their work-eligible adult population without a waiver. If a state doesn't use its 15 percent, it can bank the exemptions to distribute later, creating what Agriculture Secretary Sonny Perdue referred to as a "stockpile." The USDA's proposed rule would strip states' ability to issue waivers unless a city or county has an unemployment rate of 7 percent or higher. The waivers would be good for one year and would require the governor to support the request. States would no longer be able to bank their 15 percent exemptions. The new rule also would forbid states from granting waivers for geographic areas larger than a specific jurisdiction.

Perdue said the proposed rule is a tradeoff for Trump's support of the farm bill, which Trump signed Thursday.

"I have directed Secretary Perdue to use his authority to close work requirement loopholes in the food stamp program," Trump said at the signing ceremony. "That was a difficult thing to get done, but the farmers wanted it done, we all wanted it done, and in the end, it's going to make a lot of people happy." Democratic House leader Nancy Pelosi on Thursday slammed the Trump administration's efforts to restrict SNAP.

"Why at Christmas would you take food out of the mouths of American people?" she said. The USDA in February solic-



ited public comment on ways to reform SNAP, and Perdue has repeatedly voiced support for scaling back the program. The Trump administration's effort, while celebrated by some conservatives, has been met with criticism from advocates who say tightening restrictions will result in more vulnerable Americans, including children, going hungry. A Brookings Institution study published this summer said more stringent work requirements are likely to hurt those who are already part of the workforce but whose employment is sporadic. House Agriculture Chairman Michael Conaway, R-Texas, was the primary champion for tighter SNAP work requirements in the House farm bill and remained committed to the provision throughout negotiations.

Conaway praised the rule Thursday for "creating a roadmap for states to more effectively engage ABAWDs in

this booming economy." Conaway in September blasted the Senate for refusing to adopt work requirements and suggested that Perdue doesn't have the authority to make broad changes to the SNAP program.

"The Senate seems to have abandoned the idea that it is Congress' responsibility to fix the waiver issue and that somehow Secretary Perdue could wave a magic wand and fix that. It's not his responsibility; he does not have the authority," Conaway said in an interview with Pro Farmer, a trade publication. On Thursday, Conaway spokeswoman Rachel Millard said the congressman was referring to Perdue's authority to change laws, which he does not have, not the secretary's ability to pursue regulatory action. She said Conaway continues to support Perdue's efforts to limit SNAP. The top Democrat on the Senate Agriculture Committee,

Debbie Stabenow of Michigan, who along with its Republican chairman, Sen. Pat Roberts of Kansas, crafted the bipartisan Senate bill without any changes to SNAP, blasted the Trump administration for its attempt to restrict the program.

"This regulation blatantly ignores the bipartisan farm bill that the president is signing today and disregards over 20 years of history giving states flexibility to request waivers based on local job conditions," Stabenow said. "I expect the rule will face significant opposition and legal challenges."

“59년 만에 우승 도전” 대한민국 아시안컵 명단 발표

파울로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20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17회 아시안컵 대표팀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최종 명단에 포함된 주세종 (아산)이 연습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하며 정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이 한 시간 정도 늦게 발표되었다. 벤투 감독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흘간 두 차례 평가전과 훈련을 통해 20일 최종 명단을 발표하였다. 지난 3월 이후 오랜 기간 부상으로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한 김진수 (전북 현대)가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처음으로 소집되었다. 왼쪽 풀백에는 홍철 (수원 삼성)과 김진수가 소집되며, 박주호 (울산 현대)는 아쉽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와 더불어 석현준 (스타드 드 랭스)과 문선민 (인천 유나이티드) 역시 아쉽게 최종 명단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서

는 깜짝 발탁은 없었다. 벤투 감독은 부임 이후 6경기 (3승 3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을 대부분 최종 명단에 포함시켰다. 김진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벤투 감독 부임 이후 한차례 이상 대표팀에 소집되었던 선수들이다. 손흥민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아시안컵 전 26일까지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손흥민과 그의 소속팀 토트넘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의 차출을 응해주는 조건으로 아시안컵은 1월 13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이후에 합류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리그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 중인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팀의 핵심 선수인 기성용에 대한 차출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23일 개최지 아랍에미리트로 떠난다. 대한민국이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 59년 만에 세 번째 아시안컵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outh Korea National Team: Heungmin Son

SOUTH KOREA ANNOUNCES THEIR FINAL SQUAD FOR 2019 AFC ASIAN CUP

Paulo Bento confirmed his 23-man roster for the upcoming 2019 AFC Asian Cup on December 20 at a press conference. The announcement was postponed for an hour because midfielder Se-jong Ju, who

made the 23-man roster, had to undergo a medical check following a left thigh injury sustained during a practice match. He decided to stick with core players who has shown impressive performances in unbeat-

en streak. Most of players were called up before. However, Paulo Bento picked Jin-su Kim for the first time. He never played any matches after Bento led the national team due to serious injury. He will replace Ju-ho Park, who was regular member for the national team. In addition, Hyun-jun Suk and Seon-min Moon also cannot travel for this Asian Cup. Tottenham Hotspurs will allow Heung-min Son to play in the Asian games, on condition he leaves after January 13 so he can play against Manchester United. For that reason, he will miss first two games of Asian Cup, and he will probably be able to play for South Korea in the game against

China on January 16. On the other hand, Newcastle United asked Paulo Bento to allow their vital player, Sung-yueng Ki, join Asian Cup later as well. However, the agreement eventually couldn't be reached between the two parties causing him to miss the games. The national team, led by Paulo Bento, will leave for the host country, United Arab Emirates on December 23. Paulo Bento's South Korea national team would like to raise their third Asian Cup trophy in 59 years.

KANSAS ONCE MORE FAVORED TO WIN 15TH STRAIGHT BIG 12 TITLE

By DAVE SKRETTA, AP Sports Writer

Dec 26, 2018 LAWRENCE

There have been plenty of times over the past 14 years that Kansas was supposed to have a tough test in the Big 12, only for the Jayhawks to emerge on top when March rolled around.

The year Texas had Kevin Durant, or Oklahoma boasted Buddy Hield. The years that Jayhawks coach Bill Self had to replace all five of his starters, or that some other up-and-coming program was stocked with the kind of talent that Kansas seems to get every season.

This was not supposed to be one of those years.

Yes, the Jayhawks lost their entire backcourt of Devonte Graham, Svi Mykhailiuk and Malik Newman to the NBA. And yes, rival Kansas State returned almost its entire roster from a team that went to the Elite Eight last year, giving the Wildcats a real feeling of confidence heading into the season.

But the Jayhawks merely restocked with a bevy of high-profile transfers and five-star recruits, and the result was a No. 1 ranking that they held through much of the nonconference slate. It wasn't until this past weekend against Arizona State that they lost their first game — without injured big man Udoka Azubuike — that they dropped further than second in the AP poll. Now, the fourth-ranked Jayhawks (10-1) have a final tuneup Saturday against Eastern Michigan before setting

their sights on an unprecedented 15th consecutive conference championship.

"The reality of it is we weren't going to run the table," Self said. "Let's not get carried away, and I hate saying this — you never want to lose — but certainly you'd rather learn from a nonconference loss than a conference loss, so hopefully we get something from (the loss to Arizona State). I think it's a teaching moment."

Meanwhile, the Jayhawks might have much more competition in the Big 12 than previously thought.

The Wildcats (9-2) are coming off an impressive win over Vanderbilt despite losing preseason player of the year Dean Wade to a foot injury. No. 11 Texas Tech (11-1) leads the nation in adjusted defensive efficiency and just gave Duke all it could handle. Iowa State (10-2) got Lindell Wigginton and Solomon Young back from injuries last week and has shown plenty in their absence.

"We've got good players," Kansas State coach Bruce Weber said. "If you think about it, Dean was the only underclassman on the first team All-Big 12 last year, and Barry (Brown) was second team. So two underclassmen in an unbelievable league, probably the toughest league I've been a part of."

"To me," Weber said, "I don't think we've gotten as much recognition as we should. But I don't think they care. They're

just driven to be good players and that's important for me." They're also driven to knock the Jayhawks from their lofty perch in the Big 12.

As the league prepares to open its double-round-robin slate next week, here are some story lines:

RED RAIDERS RISING: Chris Beard's team was supposed to take a step back after losing All-Big 12 guard Keenan Evans and freshman standout Zhaire Smith to the pros. But sophomore Jarrett Culver has been playing like an All-American and the Red Raiders have shut down just about everyone they've played, even causing the Blue Devils problems in their game at Madison Square Garden.

HEALTHY CYCLONES: Iowa State's only losses have come to Arizona and Iowa, and neither of those is particularly damaging. Marial Shayok has flourished, averaging more than 20 points, and now he's got a couple of running mates to take off some of the scoring pressure. Wigginton is back from his foot issue and Solomon from a groin injury that sidelined both the first two months of the season.

TOUGH TCU: It didn't take long for Jamie Dixon to turn around TCU, and now the Horned Frogs (11-1) think they can compete for a Big 12 title. They had an early slip-up against Lipscomb but breezed past the rest of their nonconference schedule, winning the Diamond Head Classic earlier this week.

SOONERS OR LATER: Lon Kruger has had plenty of teams capable of giving Kansas a run for Big 12 superiority, but this one is putting together a sneak attack. Christian James and No. 25 Oklahoma (11-1) have quietly had one of the better nonconference runs, their only loss coming against Wisconsin.

BUMPY COUNTRY ROADS: West Virginia (7-4) returned plenty of talent from last season, including Esa Ahmad and Sagabe Konate. But little has gone right for the Mountaineers, beginning with an early loss to Buffalo and defeats to Western Kentucky, Florida and Rhode Island.



DOO DOO DOO DOO DOO DOO: 'BABY SHARK'

BITES INTO THE CULTURE

By LEANNE ITALIE

12/13/2018 NEW YORK

In the wise words of James Corden, there comes along a song every so often that defines a generation. Doo doo doo doo doo doo.

The late-night TV host, car-pool karaoke king and father of three young children was referring specifically, and wryly, to “Baby Shark,” now the bloodthirstiest of earworms for some parents and meme lovers everywhere. Insert shark hands here.

If you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you've been living inside a sea anemone since at least 2015. That's when an educational content brand in South Korea, Pinkfong, released its first shark video, later breaking the internet with a version mixing animation and two adorable human kids dancing out the story of a shark family, K-pop style, earning more than 2 billion views on YouTube. If you still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you haven't spent enough time at summer camp or around a campfire, where singalong versions of said story with said gestures, akin to an old nursery rhyme with the same theme, have rocked on for deca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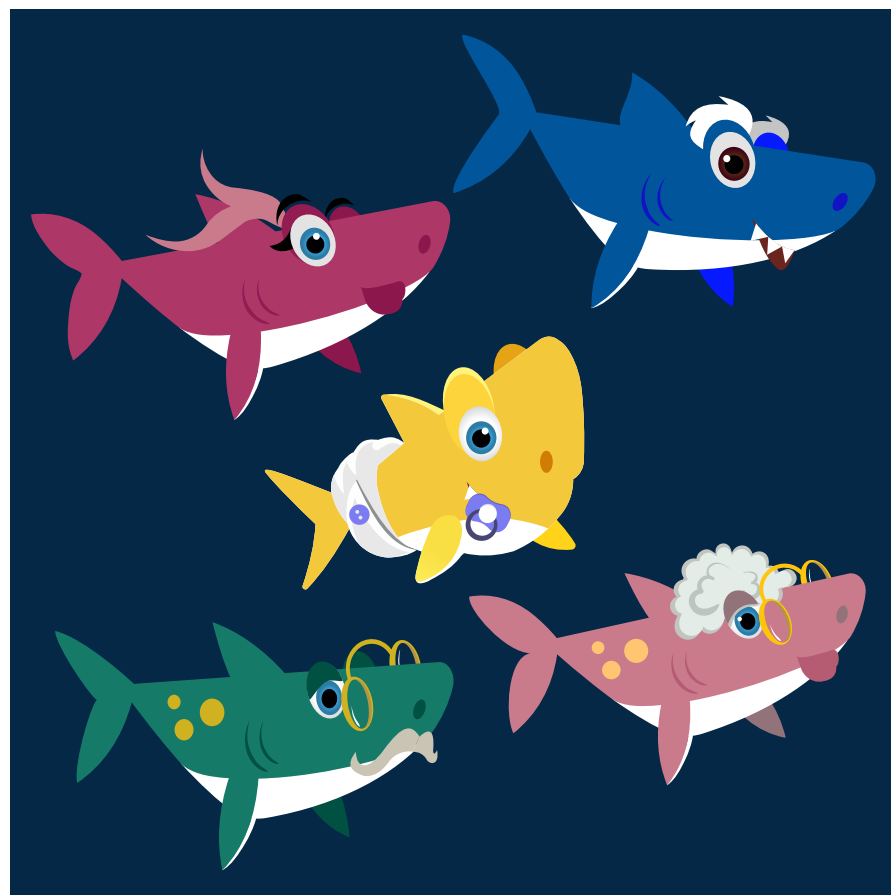
Now, thanks to the #babysharkchallenge that has us all singing, doing our shark hands and sharing on social media, and thanks to piles of soft shark heads, toddler attire and other swag that includes

singing plush toys and books, “Baby Shark” is a full-on craze, for bite-size fans anyway.

Not all grown-ups are weary. If they were, would they continue to upload themselves in mashups and mixes, from R&B to Santa Claus? Can we do without the absolutely cutest home video of them all, the little girl begging Alexa to play her favorite shark jam, frustrated by the not-so-smart device's inability to understand? What about the Texas family so enamored they synchronized their blinking, blinding holiday yard lights to the snappy tune?

Some parents of special needs kids think “Baby Shark” has not only entertained but helped their young ones. Holly Anderson is a Utah mother of four, including a 3-year-old son with autism and apraxia of speech. His autism therapist uses children's songs on YouTube to motivate him to sit still and was the first to show him “Baby Shark.”

Corden, host of “The Late Late Show with James Corden,” isn't the only celebrity to take on baby shark madness. He enlisted Sophie Turner and Josh Groban to perform the song on air. Ellen DeGeneres put her spin on the song on her talk show as well and Simon Cowell's 4-year-old son popped up on the “X-Factor UK” as dancing cuteness ensued with singing kids accompanied by adults in



shark suits for the opening of the grand final this year. Bob Cunningham, an educator and senior adviser for the nonprofit consortium Understood.org, which supports parents of kids with learning and attention issues, sees several benefits to “Baby Shark.”

“The song has a catchy rhythm and it uses silly sounds as well as colorful and cute animation,” he said.

“Also, both the music and the animation are predictable, with repeated words, phrases, colors and movements.” The combinations can capture and sustain attention even

in children where attention isn't a strength, Cunningham said. The song and video also engage most of the senses simultaneously and combine language with music and movement, which can appeal to kids who struggle with any of those things when they are presented in isolation. For example, the movement can support less developed language and the music can offer support when movements are difficult, he said.

A Montreal-based company, WowWee, has a Pinkfong license for North America to sell the shark family in plush toys that sing when tummies

are squeezed, along with soft song cube versions. Available exclusively on Amazon on pre-order that guaranteed delivery in time for Christmas, they sold out in two and a half days earlier this month, said Davin Sufer, WowWee's chief technology officer.

Sufer would not disclose how many units were gobbled up at \$19.99 each. More will be rolled out at a broader range of retailers come early 2019, along with new offerings. Third-party sellers who nabbed the toys are now offering them for more than \$100 on Amazon.

The privately-held WowWee was already in talks with Pinkfong as far back as nearly a year ago when "Baby Shark" truly exploded, said Sufer, who has three kids of his own, including a 9-year-old daughter who came home from camp last summer singing the song before she knew his involvement.

"The tune itself has an addictive quality to it," he said.

"You hear it once or twice and you hear yourself singing, doo doo doo doo doo doo. I could see maybe parents getting a little tired of it, but kids aren't."

한방으로 보는 치과질환

조선의 제조, 성종, 연산군, 중종, 광해군, 현종은 모두 치통으로 고생했던 왕들이다. 그중에 특히 치통을 심하게 앓았던 왕은 중종이었는데, 중종 39년에 승정원에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다.

"나에게 이얍이 증세가 있는데 아픈 이는 빠졌지만 또 다른 이가 아프고 흔들린다. 이이가 빠지면 음식을 먹기 어려울 것이고, 잇몸도 붓고 진물이 나오는데 약으로 고칠 수 있겠는가?" 당시에는 새이를 해 넣었을리는 만무하고 달리 묘약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상의 명이기에 내의원을 책임지고 있던 강현이 답하길, : 옥주탕으로 양치질을 한 다음 청비산을 복용하고 뇌아산을 곁에 바르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 치통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치료의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통증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치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 보통, 노쇠 또는 면역력의 약화로 인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조직에나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잇몸 조직에서 일어나면 풍치통이 발생한다. 잇몸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잇몸 국소의 혈액순환이 불량해지므로 혈행장애가 생길 수 있다. 잇몸 조직은 골격근이나 내장근처럼 근육의 수축이 활발한 것도 아니고, 조직이 치밀하여 입술이나 비갑개처럼 혈액이 급격히 몰릴 수 있는 구조

도 아니기 때문에 노쇠하거나 허약해지면 혈행장애가 나타나기 쉽다. 흔히 나이가 들면서 풍치가 잦아지는 것도 이런 연유이다. 이렇게 잇몸에 혈행장애가 발생하면 인체는 혈액을 소통시키기 위해 잇몸 조직을 팽창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잇몸이 붓고 혈이 멎치는 상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잇몸 조직에 혈이 멎치는 상태가 발생하면 잇몸 부위의 국소적 면역기능이 감소되어 구강내에 존재하는 정상 세균총에 의하여 염증이 생겨 점막이 헐게 되는데, 이것이 치은염이다. 또한 이러한 상태가 더 심해지면 화농이 될 수 있고, 더욱 심해지면 치아 뿌리까지 영향을 주어 치근염이 생겨 고름이 나온다. 이외에도 치은염은 보철이 오래되어 마모되거나 치아에 잘 맞지 않아 계속 잇몸을 자극했을 때도 발생된다.

* 치과용어 간단설명

치은염: 잇몸에 생긴 염증 | 치주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진 염증 | 치수염: 신경까지 침범된 염증 | 치근염: 치아에 고름 생성 | 치아우식증: 충치, 썩은니 | 골조풍: 치아주위 턱관절 염증 및 통증
로한클리닉의 김일형 한의사는 "치주염과 치은염에 좋은 기존의 전통적인 한약을 찾아, 먹지 않고 입에 머금고 가글만 해도 좋은 약을 개발했다. 잇몸 점막은 피부보다 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다. 미량이라

도 점막에서 약이 흡수되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접촉시켜 염증을 없애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세신과 박하 등의 성분이 들어가 기존 치통을 해소하는 역할까지 한다."

이 약은 골조풍에도 사용이 가능한데, 골조풍이란 상악골과 하악골[치아주위의 턱관절] 부위의 근육과 피부가 붓고 아픈병증으로 양방명으로 악골골수염이라 한다. 초기에는 귀 앞에서부터 아래로 부종과 잇몸 부위에 쭈시는 듯한 통증이 있고 열이난다. 피부 속에 작은 멍울이 생기는데 점차 커져 호두알 만하게 되며 그것이 끓아터지면 고름이 나오기도 하는 증상이다.

한방으로의 접근이 매우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치과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에 대해 독자들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1월 말까지 로한클리닉으로 오는 모든 방문환자들에게 치주염 및 치은염제를 무료증정합니다.

한의사 김일형 L.Ac., Ph.D., MSAOM.

Lohan Chiropractic & Acupuncture Clinic
816 - 444 - 1218



2019 년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간단한 방법들

새해가 시작될 때 마다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신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것이다. 거창한 신년 계획은 오래가지 못한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계획들은 지켜지지 않기 십상이다. 예를 들자면, 새해 첫날부터 담배, 술, 과자 등을 완전히 그만두겠다는 계획은 오래가지 못하는 반면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소비를 줄이는 계획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2019 년 더욱 건강해지고 싶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지만 잠재적으로 큰 보상이 되는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생각해 보라.

1) 수면시간 늘리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희생한 것은 수면시간이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 중 3분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밝혀졌다. 하루 7 시간 미만의 수면을 하는 사람들은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우울증 및 기타 만성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더 많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매일 밤 15 분 혹은 30 분 수면 시간을 늘리는 작은 습관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저녁 시간이 되면 활동량을 줄여 잠들기 쉬운 상태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물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거나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 수분 섭취하기
우리는 낮 동안 물보다는 에너지 음료나 과일 주스같이 당분이 많은 음료를 섭취한다. 그러나 적절한 수분 공급은 우리의 체온 조절, 관절 유효 및 노폐물 배출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위해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 바로 몸무게의 절반에 달하는 온스만큼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60 파운드의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하루에 약 80 온스의 물을 마셔야 한다. 올해 수분 섭취를 돌아보고 2019년에는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자. 아침, 점심, 저녁에 걸쳐 하루 동안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보자.

3) 신체 활동을 늘리기.
어떤 사람들은 마라톤에 참가하거나 Fitbit에서 600 만 단계를 기록하려고 한다. 물론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 활동 목표가 낮을수록 계획을 지킬 확률이 높다. 정부의 신체 활동 지침은 여전히 일주일에 최대 150 분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지

만,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등 가벼운 계획부터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다.

가능하면 계단을 더 자주 사용하고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다. 또, 집안일을 하는 등 같 활동하는 목표에 포함될 수 있다.

4) 직접 요리해 먹기.
맛이 좋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현대인들은 외식을 하거나 패스트푸드를 종종 찾는다. 가끔씩 식당 음식을 섭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 외식 음식에는 설탕, 소금 및 지방 함유량이 많아 건강에는 좋지 않다. 2019년에는 패스트푸드 섭취 포함 외식 빈도수를 일주일에 한 두 끼로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돈도 절약하고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5)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일상 생활의 일부이다.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 및 만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의 적이다. 그러나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호흡 운동, 명상, 요가, 태극권 및 음악 치료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감사할 일들에 관

한 일지를 쓰는 것조차도 긍정적인 생각을 장려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의 Integrative Healt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ansashealthsystem.com/integrative를 방문하거나 913-588-6208로 전화하십시오. 캔자스 대학 보건 시스템 김윤향 의학 박사 4000 Cambridge St. Sudler, Suite 2053 캔자스 시티, KS 66160 913-588-6208

5 SIMPLE STEPS YOU CAN TAKE TO IMPROVE YOUR HEALTH IN 2019

Two universal truths are exposed every January: A lot of people make New Year's resolutions, and very few of those resolutions last for long.

The more ambitious your proposed life change, especially if it's health-related, the harder it is to commit to it over the long haul. Instead of completely giving up smoking, alcohol, sweets or other indulgence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try scaling back your consumption over the course of weeks or months. A modest goal you can achieve is better than a lofty one you give up on.

If you're looking for ways to get healthier in 2019, consider some simple steps that aren't very time-consuming but do have a big potential payoff.

1) Get more sleep
Americans are busy, and one of the first things we sacrifice for our schedules is sleep. A recent study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ound that more than a third of us don't get a healthy amount of sleep on a regular basis. People who get less than seven hours per night may be more susceptible to hypertension, heart disease, diabetes, stroke, depression and other chronic conditions.

To get more sleep, start by

finding ways to get to bed just 15 minutes earlier every night. If you can, make it 30 minutes or more. Wind down during the course of the evening so you fall asleep more quickly. And yes, that means shutting off your screens or using blue-light filters before bedtime.

2) Drink more water
Most of us don't get enough to drink during the day, and when we do, it's often sugary sodas, energy drinks or fruit juices. Proper hydration can help us regulate our body temperature, lubricate our joints and eliminate waste more easily.

For proper hydration, we should be drinking half our weight in ounces of water. In other words, a 160-pound person should drink about 80 ounces of water per day. If you're not hitting that daily mark, try getting closer to it in 2019.

Make a resolution to drink an extra glass of water in the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When possible, carry a tumbler or bottle of water with you during the day so you have easy access.

3) Be more physically active
Some people resolve to run a marathon or try to log 6,000,000 steps on a Fitbit. While there's nothing wrong with setting a high bar, most

people have more success with less lofty physical activity goals.

The government's new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still encourage up to 150 minutes of physical activity a week, but they also recommend more manageable goals, including simply trying to sit less throughout the day.

Pledge to take the stairs more often at work or, if possible, stand up from your desk and stretch your legs at least once an hour. Even chores you do, such as housecleaning and running errands, can count toward the goal of being active more often.

4) Cook more of your own meals
We frequent restaurants and drive-through windows because it's tasty and convenient. And while there's nothing wrong with indulging once in a while, restaurants tend to give us too much sugar, salt and fried foods.

Consider scaling back your weekly restaurant visits in 2019 by one or two meals a week. The additional home-cooked meal or packed lunch can save you money and allow you to choose healthy options, especially meals that emphasize fresh fruits and vegetables.

5) Manage your stress
Stress is a part of everyday life. It can lead to depression, anxiety and chronic health problems. But all of us can do things to minimize the effect stress has on us.

Breathing exercises, meditation, yoga, tai chi and music therapy can all do a lot of good without requiring a lot of time. Even keeping a journal about the good things in your life can keep you from focusing on the bad.

To learn more about Integrative Health at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visit kansashealthsystem.com/integrative or call 913-588-6208.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Yoon Hang Kim, MD
4000 Cambridge St.
Sudler, Suite 2053
Kansas City, KS 66160
913-588-6208

THE HUMBLE ORIGINS OF 'SILENT NIGHT'

Sarah Eyerly, Florida State University

(THE CONVERSATION)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Christmas carols, "Silent Night," celebrates its 200th anniversary this year. Over the centuries, hundreds of Christmas carols have been composed. Many fall quickly into obscurity. Not "Silent Night." Translated into at least 300 languages, designated by UNESCO as a treasured item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rranged in dozens of different musical styles, from heavy metal to gospel, "Silent Night" has become a perennial part of the Christmas soundscape.

Its origins - in a small Alpine town in the Austrian countryside - were far humbler. As a musicologist who studies historical traditions of song, the story of "Silent Night" and its meteoric rise to worldwide fame has always fascinated me.

Fallout from war and famine The song's lyrics were originally written in German just after the end of the Napoleonic Wars by a young Austrian priest named Joseph Mohr. In the fall of 1816, Mohr's congregation in the town of Mariapfarr was reeling. Twelve years of war had decimated the country's polit-

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Meanwhile, the previous year - one historians would later dub "The Year Without a Summer" - had been catastrophically cold. The eruption of Indonesia's Mount Tambora in 1815 had caused widespread climate change throughout Europe. Volcanic ash in the atmosphere caused almost continuous storms - even snow - in the midst of summer. Crops failed and there was widespread famine.

Mohr's congregation was poverty-stricken, hungry and traumatized. So he crafted a set of six poetic verses to convey hope that there was still a God who cared.

"Silent night," the German version states, "today all the power of fatherly love is poured out, and Jesus as brother embraces the peoples of the world."

A fruitful collaboration Mohr, a gifted violinist and guitarist, could have probably composed the music for his poem. But instead, he sought help from a friend.

In 1817, Mohr transferred to the parish of St. Nicholas in the town of Oberndorf, just south of Salzburg. There, he asked his friend Franz Xaver Gruber, a local schoolteacher and organist, to write the music for the six verses. On Christmas Eve, 1818, the two friends sang "Silent Night"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front of Mohr's congregation, with Mohr playing his guitar.

The song was apparently well-received by Mohr's parishioners, most of whom

worked as boat-builders and shippers in the salt trade that was central to the economy of the region.

The melody and harmonization of "Silent Night" is actually based on an Italian musical style called the "siciliana" that mimics the sound of water and rolling waves: two large rhythmic beats, split into three parts each.

In this way, Gruber's music reflected the daily soundscape of Mohr's congregation, who lived and worked along the Salzach River. "Silent Night" goes global. But in order to become a worldwide phenomenon, "Silent Night" would need to resonate far beyond Oberndorf.

According to a document written by Gruber in 1854, the song first became popular in the nearby Zillertal valley. From there, two traveling families of folk singers, the Strassers and the Rainers, included the tune in their shows. The song then became popular across Europe, and eventually in America, where the Rainers sang it on Wall Street in 1839. At the same time, German-speaking missionaries spread the song from Tibet to Alaska and translated it into local languages. By the mid-19th century, "Silent Night" had even made its way to subarctic Inuit communities along the Labrador coast, where it was translated into Inuktitut as "Unuak Opinak." The lyrics of "Silent Night" have always carried an important message for Christmas Eve observances in churches around the world. But the song's lilting melody and

peaceful lyrics also reminds us of a universal sense of grace that transcends Christianity and unites people across cultures and faiths.

Perhaps at no time in the song's history was this message more important than during the Christmas Truce of 1914, when, at the height of World War I, German and British soldiers on the front lines in Flanders laid down their weapons on Christmas Eve and together sang "Silent Night."

The song's fundamental message of peace, even in the midst of suffering, has bridged cultures and generations. Great songs do this. They speak of hope in hard times and of beauty that arises from pain; they offer comfort and solace; and they are inherently human and infinitely adaptable. So, happy anniversary, "Silent Night." May your message continue to resonate across future generations.

(The Conversation is an independent and nonprofit source of news, analysis and commentary from academic experts.)

This article is republished from The Conversation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Read the original article here: <http://theconversation.com/the-humble-origins-of-silent-night-108653>.

TIME TURNS

Rev. Evan Kim

Kansas Mission Church EM

In the late 1950's, songwriter Pete Seeger penned the popular song "Turn! Turn! Turn!" Though the title of the song was unique, the majority of the lyrics were directly adapted from the first eight verses of the third chapter of the Book of Ecclesiastes. Originally flowing from the pen of a wise preacher identified as "Qohelet" (which some believe to be a pseudonym of King Solomon), those verses are a profound treatment of the ever-changing nature of life. While Seeger was inspired by them to write his song as a plea for peace during the Vietnam war, one might be

stirred to do just the opposite. Turn, turn, turn. This is life. For everything a season, a time for every matter under heaven. This is a hard reality to swallow at times. Changes happen for better or worse; this cannot be stopped. Our awareness of the transitory nature of life is typically heightened during times of transition, such as the dawn of a new year. Some carry heavy burdens and are ready for change. Others resist change, and so fight against the flow. Some are flourishing in a season punctuated by new beginnings and exciting potentials. Others are languishing in a season of prolonged frustration, feeling helplessly stuck. The relentless turning of life can be brutal and unforgiving. We understand God is in con-

trol of everything (sovereign), but it's easy to question what God is doing and if He cares at all. Yet after Qohelet's reflection, he makes a stunning statement that puts this all into perspective: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In this statement is the necessary appendage to understanding God's sovereignty: it is that He is also good. For if He were not good, His sovereignty might lead to evil. Yet because He is always both sovereign and good, He is always redeeming. All things work for good; He is making all situations, all times, beautiful for His people. If you cannot see this reality today, take hope because it is a certainty. So we can live today, and in every season, with faith. Faith

that God is in control, and that He does care. And Qohelet gives a very practical blueprint for this day-to-day faithfulness. He later writes to "be joyful and to do good, and to eat and drink and take pleasure in all toil—for this is God's gift to man." Enjoy (in wise moderation!) the daily reminders of God's provision and care, those tiny pleasures that are like windows into an eternal glory that awaits. Laugh with your friends. Eat a good meal. Take a brisk walk. Enjoy the gifts of God's common grace, while never forgetting the special grace he has given you in his salvation: His unchanging favor, love, and faithfulness in Christ Jesus, who is the unshakeable hope of your eternal glory.

캔사스 시티 종교단체 주소록

<p>캔사스 한인천주교회 64093 담임 신부: 홍진 (베드로 주임신부) 9138 Pflumm Rd., Lenexa 913-912-2574(c)/913-563-7896 honghjin@daum.net KCCNewMember@gmail.com</p>	<p>660-429-6511 / 660-864-3638 (c) krwpreach@hanmail.net www.cmkbcc.org</p>	<p>913-648-9191/ 339-440-2696(c) www.kansasmission.org facebook.com/KMCCHURCH</p>	<p>myloveisrael@gmail.com www.ksyoungnak.org</p>	<p>(213) 505-7434(Director) kpckan@gmail.com www.kpck.org</p>
<p>레반월스감리교회 담임목사: 최진호 (Jin Ho Choi) 1526 10th Ave., Leavenworth 66048 913-682-7007 / 913-705-0604 (c) vic223@naver.com</p>	<p>베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아브라함(Abraham Kim) 9595 W95th St, OP 913-617-3987 / 913-940-9188(c) Shalom4abraham@yahoo.com</p>	<p>캔사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1424 S. 55th St. KCK 714-313-6259 kansasfgc@gmail.com www.kcmusa.org/</p>	<p>캔사스우리교회 담임목사: 강현희 (Hyunhee Chang) 10100 Metcalf Ave. OP 66212 913-299-7246 kwoorich@gmail.com www.kwoori.org</p>	<p>토피카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성택 (Seoung T. Lim) 735 SW Oakley Ave., Topeka 66606 785-235-8738 / 859-556-3555(c) samuel3280@gmail.com</p>
<p>레반월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한규 (Hankyu Kim) 1000 N 10th St., Leavenworth 66048 913-682-3766 mauifullgospel@yahoo.com</p>	<p>캔사스뉴비전교회 Kansas New Visio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목사: 박근영 (Rev. GeunYoung Park) 8200 W. 96th Street, OP 66212 816-315-4174 knvc2008@gmail.com www.ksnvc.com facebook.com/KansasNewVisionChurchoftheNazarene</p>	<p>캔사스안디옥나사렛교회 담임목사: 이은철 (Eun C. Lee) 2737 S. 42nd St., KCK 66106 913-831-6779 / 913-206-6631(c) Tim0921@gmail.com http://kansasantioch.org/</p>	<p>캔사스 한인 중앙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다위 (Dawe Kim) 9400 Nall Ave, OP 66207 913-649-2488 / 816-304-2113(c) centralkoreanchurch@gmail.com facebook.com/ckumc</p>	<p>캔사스 새생명 교회 담임목사: 최안성 (Ansung Choe) 2611 S. 31th St Kansas City, KS 66106 816-800-1985©/504-875-0737 choeansung@hotmail.com kansasnewlifechurch.org</p>
<p>로랜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성환 445 Lyon St., Lawrence 66044 443-910-2732(c) www.lawrencechurch.org</p>	<p>캔사스 뉴헤이븐 SDA 한인교회 Kansas New Haven Church 담임목사: 정한철 (Harold Kim) 8714 Antioch Rd, OP 66212 전화: 913-730-0190 facebook.com/kcsdanewhaven</p>	<p>캔사스시티임마누엘감리교회 담임목사: 허강 (Jang Hur) 4900 Antioch Rd., Merriam 66203 913-631-1004 / 913-206-6880(c) hjang212hanmail.net</p>	<p>캔사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수철(Soo C. Shin) 4505 Gibbs Rd., KCK 66106 913-369-5959 / 816-560-8619 sooshin@msn.com</p>	
<p>미주리중앙침례교회 Central Missouri Baptist Church 담임목사: 김래원 (Raymond Rae-won Kim) 105 SE 421st Rd., Warrensburg</p>	<p>캔사스선교교회 담임목사: Rev. Yohan Lee 이요한 예반 김(Evan Kim, 영어부) 8841 Glenwood St., OP 66212</p>	<p>캔사스시티한인침례교회 Kansas City Korean Baptist Church 담임목사 3817 N. Wayne Ave, KCMO 64116 816-452-1906</p>	<p>캔사스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 하병진 (Byung J, Ha) 15902 Midland Dr., Shawnee 66203 913-962-9125 / 913-406-0586(c) habyoungjin@yahoo.com</p>	
		<p>캔사스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춘석 (Chun Suk Lee) 3000 S 55th St, KCK 66106 913-265-9030</p>	<p>캔사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일경 (Kyle Y. Kang) 2002 51st St., KCK 66106 913-236-7636/ 913-653-7077(c)/</p>	

무료 광고 / CLASSIFIEDS

무료 광고란은 모든 독자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터입니다. 생일, 돌잔치, 부고, 중고 물건 매매 등 모든 알리를 편하게 알려주시면 무료 한줄광고로 귀하게 실어드립니다. 편하게 애용해주시고 보내실 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FREE classified is a FREE marketplace for all KCKJ readers. Please send your notices for birthdays, anniversaries, obituaries, used items for sale, etc. Submit your announcements via email to kim@kckoreanjournal.com

구인,구직 / JOBS / Help Wanted

KOBI-Q

New Korean Asian Restaurant in Downtonwn/Crossroads hiring servers! Mila 720.366.8925

SUSHI KO LAWRENCE 에서 서버 하실분 구합니다. GOOD PAY, GOOD TIP 785-991-0081

가사도우미 구함 오버랜드 파크 남쪽, 135번가와 메카프 애브뉴 근처 일주일에 두 번 4시-7시 사이에 간단한 저녁 식사 준비 도와주실 가사 도우미 구합니다. 연락처 301-395-5868

Gangnam Korean Restaurant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Full time/Part time (무/경력자 환영) 913-383-8888 ask for Chase.

Maru Sushi 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913-258-5879

의류수선 경력자 구합니다. North Kansas City (I-29, NW 64th St)에 위치한 Alteration shop 에서 일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816-584-0845

VIVA FASHION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실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KANSAS CITY / OLATHE /

INDEPENDENCE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ALEX or JINNY 913 - 287 - 8008)

에서 맡아서 일할 사람을 찾읍니다 Hiring for immediate position. Please call/전화하십시오 816 - 861 - 2223 Dollar and TNS Beauty (2928 Prospect Ave. KC, MO)

캔사스 경로대학에서 댄스, 체조, 취미활동, 건강 강의 등으로 재능을 기부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13-236-763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an authorized METROPCS dealer in KCMO Area. We have over 20 STORES. I am currently looking for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Store Managers/ Sales Rep. Need to be able to speak English. Also, looking for anyone that would like to open a MetroPCS STORE, or purchase opened STORES. 우리는 KCMO 지역의 METROPCS 공인 대리점입니다. 우리는 20 개 이상의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 매장 관리자 / 영업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영어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Metro PCS 매장을 열거 나 열 저장소를 구입하고자하는 사람을 찾고. Ben Kim, General Manager - Tomorrow Mobile Cell - 512.906.6106 1622 Central Ave., Kansas City, KS 66102

Janitorial Services Company. 사무직0명, 매니저0명. 영어 가능자.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일단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Call (913)980-3043

eMaids of KANSAS CITY HAS HOME/OFFICE CLEANER POSITIONS OPEN! eMaids of Kansas City, is looking for: honest, friendly, motivated and experienced individuals for Home/Office Cleaning. Applicants don't need to be fluent in English, but we prefer that they speak some English so that our clients can communicate with our team. We pay between \$11.00 - \$15.00 per hour (Plus

Tips) after training. Plus we pay weekly. Must present valid ID / Social Security Card. Must pass a background check and have reliable transportation. Contact us by emailing eMaidsJOBSSKC@gmail.com or calling 913-871-5755.

Help Wanted Star Beauty에서 경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있으신분 찾고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거나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Full Time/Part-Time position available) 816-931-4747 ask for John or Josh

Polished Nails and Wax: Looking for full and part time technicians for nails, waxing, and facials: experience is a plus. Call 913.681.6245 and ask for Stephanie

서비스 / SERVICES

Jo's Auto Body Shop We buy used and junk cars and trucks! Mon-Sat 9am-7pm, 3333 Stadium Dr. KC, MO 64128, 816-923-0330 / 816-686-4046 jeongpanjo@gmail.com Pan Joe Jeong

Prepare & Enrich 예비부부 결혼전 교육 (Premarital Education by English/Korean) 주제: 예비부부의 마음 준비(Mind Preparation for A Happier Marital Life) 대상: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함께 준비하길 원하는 예비부부 (Any couple who want to be mentally well prepared for their marriage)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최대 12주) Weekly for 12 weeks at most.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A seminary professor of counseling)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Kohen & Myers Center, Midwestern Seminary)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TO POST SEND DETAILS TO:

보내주세요 KIM@KCKOREANJOURNAL.COM

부모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자녀 교육 및 양육
대상: 부모로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관련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자녀 연령별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갱년기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
대상: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성별 따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업소 매매 / BUSINESS FOR SALE

RETAIL STORE FOR RENT
10413 & 10415 BLUE RIDGE BLVD
KC, MO 64134
MOVE IN READY!
FOR MORE INFORMATION
CALL JIN KIM 860-478-7035

Cafe for sale locate at Overland Park office building. Good location and business, well maintained. Owner need to retire and move please call 913 963 2889 for more information.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현재 성업중인 오버랜드 파크 오피스 건물에 위치한

카페를 개인적인 사정 (은퇴) 으로 매매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Tel: 913-963-2889

Dry cleaners in metro Kansas City area. Excellent set of equipment plus profitable route with lots of growth potential. \$250,000 for everything. Excellent lease available. Call Tom at FNBC 816 799 0911

세탁공장 매매 (dry cleaning plant for sale
Location (위치): Olathe KS
Contact (Call,Text) :913)549-0036
가격 : \$150,000.00

휴대폰 가게 매매(Metro PCS):
캔자스 시티 지역 휴대폰 가게를 매매했습니다. 여러지역에 가게 있음(St. Joseph, Topeka, Raytown, Olathe, Merriam, Lawrence, Overland Park). 소액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락 주세요연 황(Yeun Hwang): 425-496-4040.

하숙 / BOARDING

캔자스 민박 및 하숙-방5 개,화장실 3 개, 거실, 페미리룸, 다이닝룸이 있으며 넓은 뒷마당이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10sweetpotato24@gmail.com

하숙합니다

방 3개, 화장실 3개, 라이드 가능합니다
편의 시설: 라운드리, 인터넷, 파킹랏 I-35, 210 HWY, I-29, I-635 하이웨이가 가까운거리에위치한 전화번호 913-244-8362

학원 / INSTRUCTORS

캔자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자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쿠몬 학원 Kumon Academy
대상: 3살 부터 18 세까지 Ages: 3-18
과목: 영어 및 수학
Subjects: English & Math
* 학생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자신감을 동시에 증진시켜줌.
Students learn how to study and improve learning skills at the same time enhance self-confidence.
* 세계에서 가장 큰 과외학습학원 (현재 4000개 학원에서 삼십만명의 수강생이 등록. The biggest extra-curricular learning academy in the world (30 million students are currently registered at the 4000 Academies).
* 무료 diagnostic test 및 무료 오리엔테이션 Free Diagnostic tests and complementary orientation. *전화 913 897-1111

New Art Class 미술 수업안내
pre-k~ 12th, 성인반 모집
다년간 입시지도 및 대학강의 경력의 박 사출신 선생님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선생님의 체계적인 미술수업 상담문의
816-646-1376/816-294-4283
artstudioianusa@gmail.com

Golf 개인교습 : 김준배 PGA 전문 골프 코치(PGA certified instructor)- 오버랜드 파크와 샌앤드루 골프장의 수석 코치, 캔자스(Midwest PGA Section)의 유일한 PGA 인증 전문 골프코치.(개인교습문의 913-558-7997)
Golf Private Lesson: Mr.JB KIM.
*US KID TOP 50 Teacher Award/ TPI Golf Mechanic LEVEL 2 Certified Teacher www.golfop.com, jbkkgolf@gmail.com,
913-897-3809, 913-558-7997

NLI에서 "Study Help" 프로그램은 운영합니다. 초등/중등/고등학생들의 학교숙제를 돕고, 영어학습(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중국어, 인도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Chinese, Hindi, Spanish, German, Portuguese)를 가르칩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교과목 과외합니다. Math,

Geometry, Algebra, Calculus, Science, Chemistry, Physics, Biology (문의: 913-449-2233)

사회 / COMMUNITY

한인단체장 목록 황장 안경호
캔자스 시티 한인회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G.K.C.
7800 Shawnee Mission Pkwy
Mission, KS 66202

캔자스 상록회 (회장 정영로)
The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6800 Alden St, Shawnee KS 66216
캔자스 한인 상공 회의소 (회장 공석)
916 Minnesota Ave. Kansas City, KS

캔자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자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캔자스 시티 목회자 협의회
(회장 김아브라함 목사)
2002 S 51st St. KC, KS 66106
913-653-7077 Kpckan@gmail.com

캔자스 한인 체육회 (회장 김대중)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캔자스시티연합성가단 (단장 이영애)
Korean Choir of the Greater Kansas City

캔자스 한국 문화회관 건립 협회 (회장: 민상기) 913-710-9688 8409 W. 129th Ter, Overland Park, KS 66213

캔자스 장로 성가단
(단장: 김영렬 장로)913-593-7776
(총무: 배규태 장로) 816-333-128

KCKJ 알림

- * KCKJ와 함께 광고해 주세요.
- 귀한 캔자스 한인 들의 업소를 특별가로 광고해 드립니다.
- 문의 913-802-2005 , kim@kckoreanjournal.com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kckj는 한인 여러분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담고자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글들을 500 단어 내외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상 내용과 길이는 편집될 수 있습니다.) kim@kckoreanjournal.com 로 제출해주세요
Essay Submission
Do you have a talent for writing? KCKJ is accepting essays (about 500 words) from our readers. (We reserve right to edit) Please submit to kim@kckoreanjournal.com



장영준 종합치과

STATE AVENUE DENTAL OFFICE

YOUNGJUNE CHANG, DDS

UMKC 생물학과 석사
KU 식물학과 박사
UMKC 치과대학 치의학과 박사
DEKA CO2 Laser 광경 수술
Dentsply Implant System 수료
Hiossen (한국의 Osstem) Implant System 수료
FastBraces System 수료



www.kcfastbraces.com
fastbraceskansascity.com

“20년 이상 경력의 실력있는 의사에게
여러분의 치아를 맡기세요.
편안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치료를 한 곳에서!

FastBraces (빠른 교정)



- 거의 2년 걸리는 예전 방식의 교정기간을 약 75% 짧게 5개월 정도로 단축
- 과학과 오랜 연구로 증명된 방법으로 부리 손상 없이 교정
- 거의 반가격의 저렴한 교정비
- 단, 환자의 치열상태에 따라 인비설라인 (Invisalign)도 병행 교정

임플란트



- 고가/첨단 치과 시설과 기술
 1. 3D Scan X-ray기계를 갖추어 추측이 아닌 정확한 사전 구상으로 실수를 방지
 2. CO2 Laser로 잇몸을 불필요하게 많이 절개하지 않아, 시술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으며 임플란트 시술 후 무감염/무통증 상태로 회복이 빠름
- 품질 높은 한국의 오스템(Hiossen) 정품을 대량 구입/비치해 좋은 임플란트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
- 3D X-ray 및 상담 무료

일반 치과진료



- 유아부터 어른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 일반 진료과목인 충치치료, 크라운, 브리지, 틀니, 쉬운 발치, 미백치료부터
-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랑니 발치, 소아 치과, 신경치료, 임플란트 시술, 브래킷교정 등등 까지
- 저희 치과에서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 각종 보험과 메디케이드 받음

첨단시설

1. 3D Scan X-ray: 구강암 조기발견, 안전한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시술, 과학적인 교정
2. Digital X-rays: 90% 정도 방사선 노출 감소
3. CO2 Laser Machine: 저통증, 저출혈, 무감염, 빠른 회복
4. Intra-Oral Cameras (내구강 사진기): 직접 실제 치료상황을 볼수 있어서 빠른 이해

가격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13-299-8554

진료시간

Mon-Fri 8am-5pm
Sat-Sun Emergency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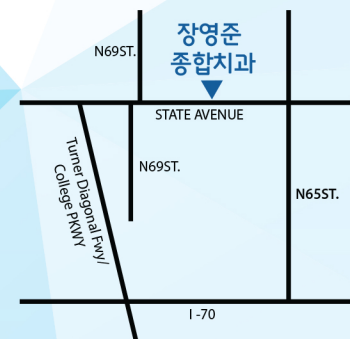
주소

6708 State Avenue
Kansas City, KS
66102

www.stateavenuedentaloffice.com
stateavenuedentaloffice

무보험자 혜택

다른 치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할인 혜택을 드리니 일단 오셔서 보시라니까요!



I-70